

[녹색연합 등록번호 | 001-06-02-002]

녹색연합 백두대간 심포지움 자료집

백두대간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할까?

- 때 : 2006년 2월 16일(목) 14:00 ~ 18: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후원 : **KTF**, 문화재청, 사람과 산



심포지움 일정

13:30~14:00 등록

14:00~14:30 여는 말 /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축사 / KTF 사장

14:30~15:20 좌 장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 제1 / 백두대간의 의미(25분)
-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발 제2 / 백두대간의 자연생태(25분)
- 신준환 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15:30~15:40 휴식

15:40~16:30 발 제3 / 백두대간의 문화역사(25분)

- 김진순 (주)코리아루트 대표

발 제4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엇이 필요한가?(25분)
- 심숙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팀 차장

16:30~16:40 휴식

16:40~17:30 지정토론

- 강경환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장(10분)
-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10분)
- 유기준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10분)
- 신영철 「사람과 산」 편집위원(10분)

17:30~ 질문과 종합토론, 맺음말

차 례

여는 말	4
축사	6
발제 1 백두대간의 의미	9
발제 2 백두대간의 자연생태	25
발제 3 백두대간의 문화역사	39
발제 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엇이 필요한가?	51
토론문	67

여는 말

백두대간,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 마당을 엽니다. 아득한 옛날 삶터를 찾아 나선 우리 겨레의 어버이들이 마침내 오늘의 백두대간을 찾아 거기에 진을 친 것은 뒷자손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찾을 수 없어 이 땅에 자리 잡아야겠다고 했던 바로 그 뜻대로, 대대로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러나 오래 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찢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뭉개기도 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비명을 지르며 허연색 피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은 그렇게 신음하며 버려져 있었습니다. 탐욕스런 인간들이 주저하지 않고 벌인 강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녹색연합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백두대간이 내쉬는 거친 숨결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고자 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힘을 모아 보살피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백두대간'입니다. 법을 만들어 지키고 이름을 알리고 잊혀진 삶의 이야기도 새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백두대간은 남녘에만 뻗어 내린 큰 줄기가 아니기에, 그것은 북녘에도 뻗어있기에 아나, 모든 줄기가 북녘 백두에서 뻗고 백두에 이어져 있기에, 백두대간의 일은 어느 경계선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남녘의 일이자 북녘의 일입니다. 백두의 큰 줄기는 휴전선의 표지판을 읽지 않으며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휴전선도 가로지르고 철조망도 넘어섭니다. 한 정부의 것도 아니며 한 체제의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고 이 땅의 자연이며 이 땅의 문화입니다.

백두대간을 보살피는 일은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어깨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특권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 주어져 있듯이 그 아름다운 생명을 지키는 책임 또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따져보면 백두대간은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구 공동체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보살피고 함께 누려야 할 '자연이며 문화'입니다. 이 땅에 뻗친 산과 강이기에 뿔뿔로 이어진 우리 동포의 것이라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지구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 백두대간은 우리의 것인 동시에 지구인

모두의 것이고, 함께 지키고 보살펴야 할 모든 지구인의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당은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살피고, 그 산줄기 속에는 세계 전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생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여, 이 생태계를 세계 공동체의 것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지혜를 아울러 그림직한 설득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이 일은 만만찮습니다. 녹색연합은 그 나름의 일을 할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역사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것이 지닌 사회의 의미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을 세계 유산의 목록에 올리는 일은 이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 번의 토론회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나서야 하고 다른 나라의 협력도 얻어야 하며 범세계 수준의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이해와 인정도 받아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헌신 또한 기본 요건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백두대간에 대한 다학문의 협력 연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 모임은 백두대간을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한 가능성으로부터 그 실현 전략에 이르는 거대한 계획을 두고 별이는 복잡한 긴 이야기의 한 가닥 실마리가 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의 모임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나 실은 아주 큰 것을 그려보는 첫 모임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탁월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관심을 나누어 주신 KTF, 문화재청 그리고 「사람과 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친히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전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 2월 16일
박 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축사

안녕하십니까? 조영주입니다.

'백두대간보전사업'의 뜻 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년여 동안 저희 KTF와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주신 녹색연합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입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우리민족의 '혼'과 '민족 정기'가 뻗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 '백두대간'은 일제에 의해 많은 왜곡과 수모를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자, 1차로 '백두대간 이름 바로 찾기'가 시작되었고, 올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백두대간 자연문화유산 100선 선정'이라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TF는 그 동안 'THINK KOREA'의 슬로건 아래,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역사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천해 왔는데, 이와 함께 '백두대간 보전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아픈 역사의 상처가 남아 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백두대간의 자연문화유산을 찾는 일은 그 동안 잊어버렸던 우리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들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계속되는 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KTF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조영주 KTF 사장

백두대간의 역사와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양보경 교수

백두대간의 역사와 의미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1. 머리말

백두대간이란 우리 국토의 지기(地氣)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大幹]로, 국토의 등뼈이다. 북쪽의 백두산 장군봉에서 남쪽의 지리산 천왕봉까지 1천 4백km에 이르는 한국의 거대한 자연대이다. 남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향로봉에서 시작, 6개도, 12개시, 20개 군 670km에 걸쳐 있으며, 오늘날 백두대간은 ‘국토의 환경축’ ‘한반도의 주 생태축’으로서 살아 숨쉬는 생태공간으로 중시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7개와 도립공원 2개를 품안에 아우르는 천연동식물의 보고로서 생태적 가치와 생명적 상징성을 지닌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물줄기를 포함한 분수계(分水界) 개념이다. 분수계란 물이 나누어지는 능선을 따라 연결한 선이다. 이에 의해 물줄기가 나누어져 하천 유역권이 형성되고, 하천 유역권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용수를 제공하고, 교통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곧 하천유역권은 사람들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니, 백두대간은 자연적 의미만이 아닌 인문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지리적 영역을 나누고, 그 속에서 터전을 일군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사고와 의식의 큰 구조를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곧 백두대간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의 자연, 생태, 사람, 역사, 문화, 사고를 형성하는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중심은 백두산이며,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여러 산들의 연속체이다.

2. 전통적 국토 인식과 산

1) 전통적인 산의 관념

원시시대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구조화하여 일정한 체계로 이해하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 또는 자연관은 인간의 역사와 활동 방향,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경관(景觀)의 형성 등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근원적 존재의 개념은 ‘자연(自然)’이다. 우리는 ‘자연미’가 있는 사람, 인위적인 수술이나 가공에 의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인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꼽는다. 자연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산과 물이다. 이 중에서도 산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자연환경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눈을 뜨면 산과 마주하며, 산과 함께 생활해 왔다. 사람들은 산지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산을 포함한 땅을 삶의 원형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우리의 건국 신화의 장소가 태백산 신단수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산은 고대로 갈수록 신성하고 두려운 존재로 파악되었다. 그 험준함과 속깊음은 신비함, 종교적 심성을 안겨 주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지러운 정국을 피해가는 피난처로서 은일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 이래, 김소월의 「산」,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 박두진의 「청산도」, 양성우의 「청산이 날 부르거든」, 김지하의 「빈산」 「지리산」 등 문학작품에서 보듯이 산은 우리 감정과 정서를 대변하는 중요 소재였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천산(天山)과 백산(白山), 용산(龍山), 신산(神山), 불산(佛山) 등의 개념이 있어(최원석, 1992), 산을 이해했던 다양한 사상적, 역사적 구조를 보여 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오랜 지리관이자 토지관인 풍수의 기본 요소가 산(山), 수(水), 방위(方位)인 것도 한국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관, 지리적 관념을 체계화한 또 다른 틀이 풍수이다. 풍수 및 풍수적 사고는 우리의 기층적인 지리관을 보여 주는 자연관이다. 풍수에서는 만물을 생성하는 기는 산에서 발원하고 산의 맥을 통하여 흐른다고 본다(최창조, 1984). 풍수의 사신사(四神砂)와 오성(五星), 조산(造山), 가산(假山) 등의 개념 역시 산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우리 민족의 산에 대한 관념, 인식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을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여, 산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이며, 이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산을 인간과 내재적·융화적 관계로 보아 우리들의 원형이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여겼다. 산을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산에도 인간처럼 여러 종류와 유형이 있고, 산은 외형에 상응하는 기운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인간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조화관계로 산을 보아 풍수에서도 비보압승(裨補壓勝) 관념이 나타났다. 여러 민족들의 신화와 신앙에서,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축(혹은 고리)으로 여기고 있다.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 이 곳을 통해 하늘의 신이 강림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은 축과 고리라는 수직적이거나, 혹은 아래로 임한다는 하향적 관계뿐만 아니다.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이 산을 통해 단군으로 인간화하고 죽어서 다시 산의 신으로 돌아간다는 순환 구조적인 원형상이 있다.

나아가 우리는 산을 개별적,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맥으로 연결된 생명체, 유기체로 인식하였으니, 산을 뼈로, 물은 피로, 나무와 풀을 털로 설명한 기록들이 그 예이다. 산지는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와 경관형성, 우리의 삶과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었음은 물론, 우리 민족에게 산은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현상 이상의 초월적 의미를 지닌 근원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산줄기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1대간과 1정간, 13정맥 체계로 자연을 체계화하였다.

2) 국가의 제사의 대상이 된 산천

옛부터 산과 하천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특히 동양에서는 산천을 인간과 유기적, 조화적 관계로 보았으며, 산천을 포함한 땅을 우리들의 원형이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자연은 국가에서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되었다. 통일신라는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부악(父岳, 지금의 팔공산)을 오악(五嶽)이라 하였다(『三國史記』 祭祀志). 오악은 삼국통일 직후에 성립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중사(中祀)가 행해졌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전에는 경주 남산, 경주 선도산(仙桃山), 토함산, 금강산, 단석산(斷石山)이었다. 이 오악은 수도이던 경주 부근에 위치한 것이었으나, 통일 이후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오악의 위치가 넓은 범위로 확장된 것이었다. 특히 백제와 신라에서는 산신을 숭상하여 산신에게 제사지내기를 좋아하였다.

고려의 4대산은 덕적산(德積山), 백악(白岳), 송악산(松岳山), 목멱산(木覓山)이었으며, 이들 산의 산신에게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체제정비를 유교의 정치사상과 예적 질서를 바탕으로 행하게 되어 유교에서 말하는 사전(祀典)을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조선에 들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제사처 중 자연과 관련된 제사로 산천신(山川神)과 성황신(城隍神)을 제사지내는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악해독(岳海瀆)이 있다. 이 가운데 악(岳)은 산악에 대한 제사, 해(海)는 동·서·남해신에 대한 제사, 독(瀆)은 큰 강에 대한 제사이며, 그 밖에 기우제인 우사가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제사처들이 실려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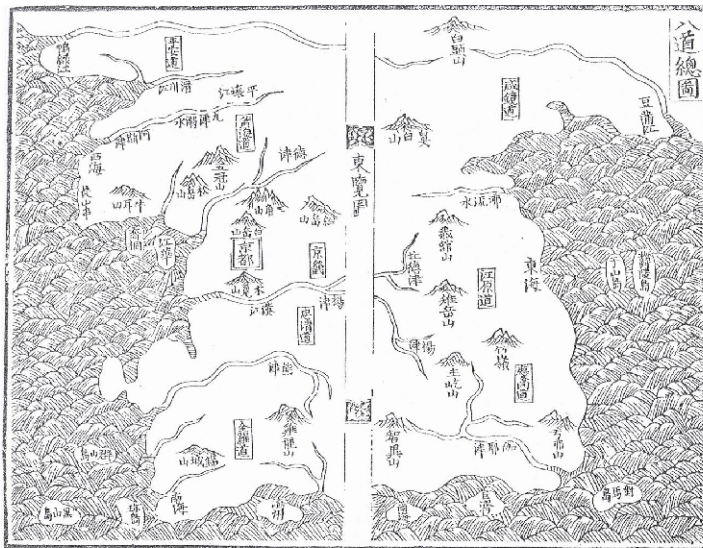


그림 1.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수록된 「팔도총도」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이 책의 전도에는 중사(中祀)와 소사(小祀)를 지내는 산천이 표시되어 있다.

3. 백두대간과 「산수고」, 「산경표」

‘백두대간’의 개념은 오래된 것이었으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산맥 체계가 확립된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로 생각된다. 『산경표』에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1개의 대간(大幹)과 1개의 정간(正幹),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조선의 산줄기가 분류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편찬된 여암 신경준(1712~1781)의 『산수고』에는 백두산에서 12개의 산으로 나누어지는 체계로 정리되어 있다.

1) 『산수고』

조선 후기의 가장 뛰어난 지리학자의 한사람이었던 여암 신경준(1712~1781)의 많은 저작

가운데 『산수고(山水考)』와, 그가 주관하여 편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여지고(輿地考)」는 국토의 뼈대와 핏줄을 이루고 있는 산과 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지리서이며, 한국적인 산천 인식 방식을 전해 준다. 신경준의 『산수고』는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된다.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 (우리나라) 山水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팔로(八路;팔도)가 된다. 팔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고 하여 『산수고』를 쓰게 된 동기와 산수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서문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과 강을 분합(分合)의 원리로 파악하여 대칭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음양의 구조로 이해하였던 저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의 주요 산과 하천을 각각 12개로 파악한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관과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의 운행을 보면 1년은 열두달로 완결되며, 우주 만물에는 양과 음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천도 일반 자연 법칙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 12개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있으며, 산수의 흠어짐과 합함, 우뚝 솟아서 있음과 아래로 흘러내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소우주로 이해하여 완결적인 존재로 파악하던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산수고』에는 12개의 산과 하천의 명칭이 개괄되어 있다. 12산은 ① 삼각산 ② 백두산 ③ 원산(圓山) ④ 낭림산 ⑤ 두류산(豆流山) ⑥ 분수령 ⑦ 금강산 ⑧ 오대산 ⑨ 태백산 ⑩ 속리산 ⑪ 육십치(六十峙) ⑫ 지리산이다. 12수는 ① 한강 ② 예성강 ③ 대진강(大津江) ④ 금강 ⑤ 사호(沙湖) ⑥ 섬강(蟾江) ⑦ 낙동강 ⑧ 용흥강(龍興江) ⑨ 두만강 ⑩ 대동강 ⑪ 청천강 ⑫ 압록강이다.

산 중에는 삼각산을, 물은 한강을 으뜸으로 쳤으니, 이는 수도를 높이는 것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서문에서는 백두산에서 조선의 산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면서도 실제 산의 분포를 서술할 때는 한양의 삼각산에서 시작함으로써, 그가 백두산 중심의 사고와 수도 중심의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산은 삼각산을 앞에 놓고, 이어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를 따라 차례로 서술하였다. 반면에 강은 한강을 처음에 기록한 후 예성강, 금강, 낙동강,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등으로 중앙에서부터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서 강을 설명하였다.

『산수고』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우리나라 산천에 관한 글들의 바탕이 되었다. 신경준이 이와 같은 거작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완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여암이 『산수고』에서 전국의 걸친 산천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이후 각 군현 단위로 활발하게 편찬되었던 읍지를 통해 각 지방에 관한 상세한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757년~1765년 사이에 편찬된 각 읍 읍지를 수록한 『여지도서』 55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산수고』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국의 산과 강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망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촌락과 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산과 강의 측면에서 파악한 책이다.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산과 하천을 씨줄(經)과 날줄(緯)의 개념으로 파악했던 사실을 신경준의

『산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줄기와 강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날줄(經)로, 각 지역별 산천의 상세하고 개별적인 내용을 씨줄(緯)로 엮어 우리 국토의 지형적인 환경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단위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신경준의 우리나라 산천에 대한 이와 같은 체계적인 파악은 전통적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체계화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연현상을 주제로 하여 전문적으로 접근하였던 『산수고』에서 우리는 지리학의 다양화와 계통지리학적인 요소, 나아가 근대지리학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산수고』 그리고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이후에는 이와 같이 산수를 함께 엮은 지리서에서 한걸음 나아가, 산을 중심한 지리서와 하천을 중심한 지리서가 독립적으로 편찬되고 분화된다. 산을 중심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정리한 책이 『산경표(山經表)』이며, 강을 중심으로 강줄기와 그에 관련된 지역의 모습을 서술한 대표적인 책이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이다.

2) 『산경표』

현존하는 산경표의 저술 시기는 18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1795년에 바뀐 평안도의 초산(楚山), 1800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의 군현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1800년에 바뀐 충청도의 노성(魯城)은 개칭되기 이전의 지명인 이성(尼城)으로 표시되어 있어 산경표의 저본이 되었던 자료들은 18세기 후반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현진상, 2000).

『산경표』의 저자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광문회에서 간행할 때에도 저자를 알 수 없었던 듯 서문에 신경준이 편찬한 『여지고』(『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지칭)의 「산경」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편찬자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산경표』를 신경준의 저술로 단정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경표』가 신경준(1712~1781)이 편찬한 『산수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신경준의 저작은 아니다.

『산경표』는 1800년경에 저술되었으나, 산경(山經)의 개념은 조선시대 이전, 아마도 풍수적 사고의 형성기 즉 삼국시대 후기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경이란 산의 날실, 곧 산들의 세로 줄기를 뜻한다. 산경이란 용어는 이미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보인다. 강원도 통천군 「누정(樓亭)」조에 총석정(叢石亭)을 묘사하며, 고려시대의 학자 안축(安軸, 1287~1348)의 기문 속에 ‘사방의 산경(山經) 지지(地志)를 기록하는 이가 천하의 물건을 다 찾아서 적었지만, 아직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이미 안축이 생존했던 고려시대에 ‘산경’이라는 개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들의 족보인 셈이다. 책의 윗부분에 대간(大幹)·정맥(正脈) 등의 명칭을 가로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세로로 산·봉우리·고개 등의 연결관계, 산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표 밖의 상단에는 그 산이 속한 군현 이름을 표시하여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나타냈다. 『산리고(山里攷)』 『기봉방역지(箕封方域誌)』 『여지편람(輿地便覽)』 등 제목이 달리 붙은 본들도 있으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산경표』에는 1개의 대간(大幹) 즉 백두대간(白頭大幹)과, 1개의 정간(正幹) 즉 장백정간(長白正幹), 그리고 낙남정맥(洛南正脈)·청북정맥(淸北正脈)·청남정맥(淸南正脈)·해서정맥(海西正脈)·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한북정맥(漢北正脈)·낙동정맥(洛東正

脈)·한남금북정맥(漢南鎭北正脈)·한남정맥(漢南正脈)·금북정맥(鎭北正脈)·금남호남정맥(鎭南湖南正脈)·금남정맥(鎭南正脈)·호남정맥(湖南正脈) 등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조선의 산줄기가 분류되어 있다(그림 2). 이러한 산줄기 체계는 『해좌전도』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전도』 등 조선 후기의 지도들에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산경표에 나타난 산맥 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의 맥락과 명칭을 체계화하였으니, 산줄기를 1개의 대간과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부여하였다. 신경준의 『산수고』나 『동국문헌비고』의 「여지도」에 산의 갈래와 흐름을 이야기하였으나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15개의 줄기로 나누고, 산줄기의 이름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산맥의 체계가 하천의 水系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이다. 산줄기의 이름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은 청천강을, 청남정맥과 해서정맥은 대동강을, 해서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은 예성강을, 임진북예성남정맥과 한북정맥은 임진강을,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은 한강을, 금북정맥과 금남정맥은 금강을, 호남정맥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구분하는 등 주요한 하천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은 하나의 하천 수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정맥과는 달리, 지금의 함경산맥 이남과 태백산맥 동측의 여러 작은 하천 들을 나누는 구분선으로 대간과 정간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하나의 하천 유역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정맥과 구분하였다.



그림 2. 『산경표』의 산맥 분류 체계

실제로 산줄기의 맥을 파악하려 할 때 물줄기는 그 기준이 된다. 성호 이억도

“대개 백두산의 큰 줄기가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달리는 사이, 철령은 북관(北關)의 좁고 험한 곳이 되었고 조령(鳥嶺)은 동남쪽의 높고 험한 곳인데, 철령 이북으로부터는 산세가 다 서쪽으로 달려 그 맥락을 찾으려면 반드시 물을 의거하여야만 그 줄기를 알 수가 있다……두 줄기 물 사이에는 반드시 한 줄기의 산이 있는데, 이른바 청석령(靑石嶺)이라는 한 줄기는 서강과 저탄 사이에 있어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이고, 정방성(正方城)의 한 줄기는 저탄과 대동강 사이에 있어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계가 되고 있다(『星湖僿說』 卷1「天地門」‘西道關陔’).”

고 하여 산줄기의 맥은 물줄기에 의거해서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자연적으로 구분된 단위인 수계(水系) 또는 하천이 지역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동시에 지역을 상호 연계시켜 주는 통로의 구실을 하는 양 측면이 있음은 흔히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섬진강 양안, 즉 경상도의 하동과 전라도의 구례나 광양은 양 지역의 문화나 생활양식이 혼합되어 점이적인 성격을 보이고, 시장의 이용 등에서 교류가 빈번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수계(水系)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산줄기를 산줄기만으로 분리시켜 고찰했다기 보다,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활권 내지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문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던 결과라 생각된다. 이는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유기적인 통합체로 보는 사고와도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산줄기에 위계성을 부여한 점이다. 간은 줄기이고, 맥은 줄기에서 흘러나간 갈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적 차별성은 산이나 산맥의 크기와 높이, 넓이 등 물리적인 외형상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연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계층성과 차별성을 두었던 중세적인 사유, 성리학적인 사유 구조에서 말미암은 자연의 분류 체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산과 산의 분포, 위치를 줄기 또는 맥으로 파악하여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마치 혈맥이 뻗어나가 서로 통하듯이 모든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산줄기와 산줄기의 결절점에 주요 산이 위치하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이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앞서 살펴 본 신경준의 『산수고』는 백두산을 중시하면서도 중심을 한양에 두고 있었다. 산의 줄기를 중심으로 본 『산경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지역 인식을 체계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작업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산경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맥을 체계화한 산 중심의 인식 체계를 제시하였으나 산맥 분류 체계는 강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4. 백두대간의 인식 : 고지도와 백두대간¹⁾

조선 건국 직후인 1396년(태조 5)에 이첨(李詹, 1345~1405)은 「삼국도후서(三國圖後序)」에서 고려의 지도를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이 장에서 언급된 고지도는 발표시에 사진으로 제시함.

삼국을 통합한 뒤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산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절령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오르며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소백산·죽령···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峯)으로 뻗었는데 지리와 지축(地軸)이 여기에 와서는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맑은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薩水)·····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 중에서 가야진(伽倻津;낙동강)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돌렸으니, 그 풍기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東文選』 권92, 「三國圖後序」).

이 글에서 언급한 지도는 현전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의 전국지도를 보고 기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침이 묘사한 당시 고려의 지도에 백두산으로부터 산맥이 연속되어 내려오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는 아프리카·유럽으로부터 일본까지 당시의 세계를 그린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에는 16세기 이후의 지도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백두산이 지도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작은 글씨로만 쓰여 있다. 산지 표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지도의 특징은 선으로 산지를 그림으로써 산맥을 강조한 점이다. 조선 이외의 지역의 산들은 개별 봉우리로 처리한데 비하여, 조선의 산만 유일하게 산맥으로 표시하였다. 이것은 기본도로 사용하였던 당시의 조선전도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위의 이침의 글과 연결시켜 볼 때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지도에 표현된 산맥의 내용과 체계는 조선 후기의 산맥체계와 다르다. 단지 백두대간의 윤곽은 조선 후기의 그것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백두산이 그 이남의 산맥들과 단절되어 있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16세기 중엽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는 아직도 조선의 윤곽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백두산이 크게 그려져 강조되어 있고, 한양으로 뻗은 산줄기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어 이제 백두산과 한양이 조선의 산천 체계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 준다.

1557년~155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만주 일대를 압축해 그리고, 크고 작은 산맥을 상세하게 선으로 그린 지도인데, 그 내용은 후대의 『산경표』에 보이는 산맥체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백두대간’을 살펴보면 두 곳에서 단절이 되어 있다. 첫째는 백두산 바로 아랫부분이며, 둘째는 함경도 정평(定平)과 영흥(永興) 사이이다. 어쨌든 16세기 후반 경에는 산맥 표현의 체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지도들은 세계지도, 또는 조선전도에 표시된 산맥 표현이었다. 18세기 지도에는 군현지도에도 산지를 맥으로 인식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에는 지도의 여백에 산지의 맥을 특별히 기록해 놓아 주목된다. 경상도 북부지역 도폭에 “태백산대간(太白山大幹)”으로 시작되는 설명이 우측 상단에 있다. 충청 북부 지역을 그린 도폭에도 “태백산 대간룡(大幹龍)이 서쪽으로 속리산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대간의 남쪽 기슭이 되며, 한 가지가 꺾여 북쪽으로 가다가” 기록이 있으며, 경기도 도폭에도 ‘남간(南幹)’ ‘간맥(幹脈)’ 등의 표현이 지도 하단 주기에 적혀 있다.

1720년경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함경도지도(咸鏡道地圖)』는 중국지도와 성경(盛京:

지금의 瀋陽 즉 선양)지도, 조선총도, 함경도 각 군현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집이다. 지도의 상단과 뒷면에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주기에 서울의 삼각산이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산맥 체계를 설명하면서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맥을 분명하게 적어 놓았다.

백두산대간(白頭山大幹)이 무산과 갑산 두 고을로 부터 남쪽으로 와서, 허리와 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향해 (평안도) 영원 동쪽에 이른다. 무산 앞에서 동쪽으로 떨어지는 작은 산줄기[東落小幹]가 온성과 行營을 지나 경원 서쪽에 이른다. 부령에서 남쪽으로 남은 작은 줄기[南落小幹]가 길주와 단천 사이에서 그친다. 또 남쪽으로 떨어지는 작은 줄기가 이성과 북청 사이에서 그친다. 또 남쪽으로 떨어지는 작은 줄기가 홍원과 함흥의 경계에서 그친다.

18세기 초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군현지도집인 『여지도(輿地圖)』, 그리고 이 지도를 19세기 초에 모사한 『광여도(廣輿圖)』에도 “白頭山來脈” “南去大脈” “茂山嶺去脈” “鏡城牟德落脈”(무산부), “東走磨天峯山脈” “大脈” “北靑邑底落脈”(단천부), “長白山大脈” “至西水羅去脈”(부령부), “東至磨天峯上脈” “北去長白山大脈”(길주목) 등이 표시되어 있다. 山脈, 大脈, 來脈, 去脈, 落脈, 上脈 등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²⁾.

풍수와 다른 또 다른 국토에 대한 인식은 우리 국토의 형상을 인체에 비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백두대간’의 개념 형성과 체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海東地圖)』 중에 수록된 「팔도총도(八道摠圖)」의 우측 하단에는 우리 국토를 사람에 비유한 내용이 적혀 있다. 19세기 초의 지도로 추정되는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에도 제목 아래 우리나라 지형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에 비유할 경우 ‘백두대간’의 의미는 더욱 귀중한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은 인체의 등뼈가 되어 인체를 지탱해 주는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성호 이익도 우리나라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가운데가 가늘고 아래쪽이 풍만하다. 백산(白山)이 머리가 되고, 대령(大嶺)이 등뼈가 되니, 마치 사람의 옆머리와 등을 구부린 것과 같으며, 대마도와 탐라는 양발과 같다고 하였다.

5. 백두대간의 인식 : 고문헌과 백두대간

1) 국토의 宗山 개념의 성립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연적 상징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8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으니 이 산은 곧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祖宗)이다.”라고 기록하였다. “홍세대의 백두산 기문에 이르기를 백두산은 북방 모든 산의 조종(祖宗)이다. 청나라의 선조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우리의 북쪽 국경에서 300여리 쯤 되는 곳이다. 저들은 장백산이라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두 나라가 산 위에서 갈라진 두 강으로 경계를 삼는다”는 백두산에 대한 관념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백두산에 대한 숭앙심과 백두산의 영역적 의미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또한 “백두산은 전국 모든 산의 조종(祖宗)이자 우리 성조(聖祖)께서 위대한 왕업(王業)을 시작한 곳”(『北路紀略』, 序 : 李乾夏) 등의 표현은 백두산과 주변 지역의 또 다른 의미, 즉 백두산이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신성시되었음

2) 예를 들면 “白頭山來脈” “南去大脈” “茂山嶺去脈” “鏡城牟德落脈”(무산부), “東走磨天峯山脈” “大脈” “北靑邑底落脈”(단천부), “長白山大脈” “至西水羅去脈”(부령부), “東至磨天峯上脈” “北去長白山大脈”(길주목) 등이다.

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백두대간’의 명칭은 백두산에서 뺀어 내린 큰 줄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은 백두산의 명칭이 확립된 이후에 사용된 개념이다. 백두산의 명칭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에는 여덟 가지 이름을 제시하였으니, 불함(不咸), 개마(蓋馬), 도태(徒太), 태백(太白), 장백(長白), 백산(白山), 백두(白頭), 가이민상견(歌爾民商堅)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백두산은 단단대령(單單大嶺), 개마대산(蓋馬大山) 등으로도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백두산과 함께 장백산(長白山)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했다. 장백산이라는 호칭은 뒤에 언급하듯이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그리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여러 곳에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함경도 회령도호부 「산천(山川)」조에 백두산이 곧 장백산이라고 설명한 것, 『대동수경』에 장백산으로 기록한 것 등은 장백산이라는 이름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본격적으로 숭배화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설화부터라 생각된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세계(高麗世系)에는 왕건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김관아의 『편년통록』에 옛날에 호경(虎景)이라는 사람이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 …… 세조는 송악산 옛 집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했는데 그 터는 곧 연경궁 봉원전터이다. 그 때에 동리산(桐裏山)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나라에 들어 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을 배워 가지고 돌아 왔는데 백두산에 올랐다가 곡령(鶴嶺)까지 와서 세조의 새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이 땅의 지맥은 북방(北方)인 백두산으로부터 수(水)와 목(木)이 근간이 되어[水母木幹] 내려 와서 마두명당(馬頭明堂)이 되었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수(水)의 대수(大數)를 좇아서 집을 육육(六六)으로 지어 36칸으로 하면, 천지의 대수(大數)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한 기록이다. 같은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적혀 있다 이 기록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고려는 통일 후 수도를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개성으로 옮기고, 각 지역 인물의 포용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위의 기록은 왕건의 태생지인 개성과 왕건의 인물됨을 풍수에 의탁하여 신성화한 내용이다. 개성이라는 지역과 왕건이라는 인물을 신성화하는 근거와 수단으로 백두산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백두산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성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국민을 통합할 설득력있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고려시대까지 백두산은 우리의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진족의 거주지역이었다. 백두산은 15세기 초에 적극적인 북진정책과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로 확보되었다. 특히 세종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영토를 넓히고, 확고한 자연지형을 국경으로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700여년 이상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한 세종은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6진을 설치하여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한편 임진왜란 때 조선에 대한 원병 등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여진족은 그 세력을 강화하여 1616년(광해군 8)에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추장 누루하치[奴兒哈赤]가 심양(瀋陽)에

후금(後金)을 세우고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 1627년과 1636년에 조선을 침공하였으며, 1636년에는 나라 이름을 청이라 개칭하고 중국 대륙을 점령하여 중국의 주인이 되었다.

중국을 점령한 청나라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들 조상의 발상지의 성역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1677년에 장백산을 가서 살피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는 장백산신(長白山神)을 봉하고 오악(五嶽)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1644년에는 조선 인민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엄히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여진의 뿌리 지역이며 동시에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백두산을 중심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문제라는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와의 사이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경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백두산은 국경분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백두산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현실적 측면에서 국왕 이하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1712년(숙종 38)에 조선과 청나라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으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남쪽 10리 지점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조선도 1767년(영조 43)에 함경도 갑산부 80리 지점 운룡보(雲龍堡) 북쪽 망덕평(望德坪)에 장소를 골라 각을 세우고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英祖實錄』 권109 英祖43년 7월 庚子). 백두산 치제는 국가의 조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의미를 확고하게 하였음은 물론, 왕실과 왕권, 함경도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전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헌은 19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경표(山經表)』이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개념은 훨씬 앞서 형성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산을 단절된 고립된 봉우리로 보기보다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맥세(脈勢)로 이해하는 지형 인식은 풍수 사상의 보급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풍수가 삼국시대 이후 보급되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토의 지형을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뿌리로 보는 관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특히 고려시대에 풍수가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백두산 중심의 지맥론(地脈論)은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수에서는 산을 용(龍)으로 이해한다. 용은 생명체이며, 생명체는 단절되지 않으며, 생동하는 움직임을 갖는다. 땅을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지만, 풍수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앞서 인용한 『고려사』의 기록은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우리나라 지형을 맥세 즉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인식을 보여 주는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도선(道詵)의 비기(秘記)를 인용하여, "이 땅의 지맥은 북방(壬方)인 백두산으로부터 수와 목이 근간이 되어[水母木幹] 내려 와서 마두명당(馬頭明堂)이 되었으며……천지의 大數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고 한 것에서, 고려 태조 왕건을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맥의 명당이 배출한 인물로 신성시한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한 지리지였으며, 실록을 편찬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과정을 거친 국가의 공식적인 문헌이다. 이 책에는 함길도(咸吉道, 후의 함경도)의 강역을 "동쪽은 큰 바다[大海]에 임하고, 남쪽은 철령(鐵嶺)에 닿고,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하였다. 준령이 백두산에서부터 기복(起伏)하여 남쪽으로 칠령까지 천여 리에 뻗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역시 지역의 주요 지형을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로 파악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 준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함길도 길주목(吉州牧)에도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까지 78리, 서쪽으로 백두산의 내맥(來脈)인 대산(大山)에 이르기 90리인데, 갑산(甲山)과 접경이 되며, 남쪽으로 단천(端川) 마천령까지 91리, 북쪽으로 경성(鏡城) 운가위(雲加委)의 대천(大川)에 이르기까지 89리이다.

길주의 서쪽 경계인 대산을 백두산의 내맥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산맥의 개념이 용어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국가의 안정과 부흥을 이룩하였던 국왕 정조의 다음 언급은 조선 후기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땅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

광릉(光陵)에 전배(展拜)하였다. 아침에 양주목을 출발해서 축석령(祝石嶺)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었다. 이때 새벽비가 살짝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깨끗하였는데, 사방의 산들이 수려함을 다투는 듯 영롱히 빛났다. 상이 승지 서영보에게 이르기를, □□이 축석령은 백두산(白頭山)의 정간룡(正幹龍)이요, 한양으로 들어서는 골짜기이다. 산의 기세가 여기에서 한 번 크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 도봉산이 되고 또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나 삼각산이 되는데, 그 기복이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王城) 한 지역에 모여 있다. 산천은 사람의 외모와도 같은 것이어서 외모가 좋은 산천은 기색 또한 좋다. □□하였다(『正祖實錄』 권35 正祖 16년 9월 丁未).

정조는 축석고개를 백두산의 정간룡(正幹龍)이라 지칭하였다. 당시 일반인은 물론 관료와 왕실에서도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지맥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위의 기록 등 ‘백두대간’의 개념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인 한양의 좋은 지세를 강조하고, 백두산에서 내려 온 국토의 정기가 모인 장소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 한 지역에 모여 있다’는 국왕 정조의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수도(首都)를 중심으로 국토를 파악하는 사고는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국왕이 거주하며, 왕조의 중심인 수도는 기능적으로 국가의 행정적·문화적 중심이었지만, 옛 사람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의 측면에서 상징적인 중심으로서 성(聖)과 속(俗)이 만나는 소우주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지도제작에서 방위 표현을 수도인 한양 중심으로 하는 등 지도는 물론 지리지와 여러 읍지들에서도 보인다.

3) 백두대간 체계의 확립

‘백두대간’의 개념은 오래된 것이었으나,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산맥 체계가 확립된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로 생각된다. 『산경표』에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1개의 대간(大幹)과 1개의 정간(正幹),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조선의 산줄기가 분류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편찬된 여암 신경준(1712~1781)의 『산수고』에는 백두산에서 12개의 산으로 나누어지는 체계로 정리되어 있다.

18세기 중엽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백두정간(白頭正幹)」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다. 철령으로부터 그 서쪽의 모든 가지들은 서남쪽으로 달렸다. 철령으로부터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닿도록 우뚝 치솟았으니 이것이 곧 정간(正幹)이다. …… 그 왼쪽 줄기는 동해를 끼고서 뭉쳐 있는데, 하나의 큰 바다와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시종을 같이 하였다. 거북이와 자라, 용과 물고기들이 여기에 살고 재화가 여기에서 번성하니, 문헌히 인제가 양성되는 까닭이다. …… 대개 한줄기 곧은 大幹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에서 중봉을 이루고 지리산에서 끝나니, 당초 백두정간이라 이름지은 것이 뜻이 있어서일 듯하다. 그리고 인제가 나온 곳간이 되었으니, 필경 국가가 기뻐 바가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알겠다(『星湖僮說』 권1 天地門 「白頭正幹」).

‘백두대간’이라는 명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백두정간’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다룬 글이다. 더욱이 본문 중에는 백두대간의 왼쪽 줄기가 동해를 끼고 뭉쳐 있는데, 큰 바다와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고 서술하여, ‘백두대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도관애(西道關陔)」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대체로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달린다. 그 사이에 철령이 북관(北關)의 관문이 되고, 조령이 동남의 관문이 되었다(『星湖先生僮說』(奎 7364) 권2, 天地門, 「西道關陔」)”라고 하여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보면 이익은 ‘대간’과 ‘정간’이라는 명칭을 혼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18세기 중엽 성호 이익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아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의 지리학자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쓴 『택리지(擇里志)』에도 “백두대맥(白頭大脈)”³⁾ “백두남맥(白頭南脈)”⁴⁾ “대간(大幹)”⁵⁾ 등의 표현이 보인다. 또한 정약용도 『대동수경』에서 ‘백산대간(白山大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大東水經』 其一, 滌水一). 조선 시대 지리학의 특징을 이루었던 각종 지리지에도 산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온다. 앞서 언급하였던 조선 초기의 지리지를 이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전국지리지인 17세기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도 함경도 갑산도호부의 ‘산천’조 ‘우라한령(汚羅漢嶺)’을 “백두산의 남쪽 가지이다. 국내 산맥(山脈)이 모두 이곳을 근본으로 삼는다(威鏡道, 甲山都護府, 「山川」)”고 기록하여 산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영조대에 왕명으로 편찬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모든 군현의 「산천」조에 산의 흐름을 표시하여 주목된다. 이전의 읍지들과 달리 「산천」조에 내맥(來脈), 대맥(大脈), 주맥(主脈), 낙맥(落脈), 후맥(後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뒤에 기술할 『여지도』 등 18세기 지도의 표현 방식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함흥(咸興)의 「산천」조에는 ‘부내의 산맥(山脈)이 백두산으로부터 북쪽의 후치령을 따라 부의 북쪽 경계 원천사에 이르러 태백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의 이와 같은 산천 기록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 표현을 중시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었음을 더욱 확실히 보여 주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擇里志』 八道摠論 威鏡道

평안도 동쪽의 白頭大脈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하늘을 자른 듯이 끊어져 嶺이 되었다.

4) 『擇里志』 八道摠論 黃海道

대개 白頭南脈이 함흥부 서북쪽에서 불췌 떨어져 김문령이 되고, 또 남쪽으로 내려 와서 노인치가 되었다.

5) 『擇里志』 卜居摠論 山水

백두산에서 함흥까지는 山脈이 북쪽으로 내려 왔다... 大幹은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었으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산까지 한 줄기의 嶺으로 통해 있다.

18세기 이후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관심의 대상도 영토·정치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사회·인문·경제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즉 국토 전체를 균형적으로 보는 넓은 차원으로 관심이 진전되었다. 백두산이라는 산에 대한 점적인 대상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조선 후기에는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 전체, 그 지역의 주민, 주민들의 삶에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백두산으로부터 가지와 줄기로 연결되는 산맥 체계를 이루었다고 보는 '백두대간'과 산지체계 개념은 위와 같은 국토에 대한 포괄적, 균형적 관심에서 체계화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 산맥 체계는 산과 강을 기준으로 한 생활권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전통적 산지체계는 산지와 인간의 삶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이며,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고 보인다.

6. 맺음말

국토공간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 인문이 총체적으로 결합되고 축적된 우리 국토의 상징이자, 우리 국민의 가장 의미있는 공동의 신성한 장소(place)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백두대간' 개념이 포함된 것이나, '백두대간 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은 전통의 현대적 응용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리학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역인 공간(space)과, 특정한 의미와 고유성을 지닌 장소(place)를 구분한다.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장소인 것이다(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5.)"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한 공동의 장소 '백두산과 백두대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의미의 장소를 지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적 관리

국립산림과학원
신준환 · 이임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적 관리

신준환 · 이임균(국립산림과학원)

머리말

백두대간이란 역사시대에 형성된 개념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원산, 낭림산, 두류산,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큰 산줄기를 형성하면서 물줄기를 동서로 가르는 국토의 골간을 말한다(현진상, 2000).

백두대간의 개념은 신라말경 선승(禪僧)들에 의해 잉태되어(최창조, 1990; 최병헌, 2002),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성숙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완성되기까지 색다른 역사적 배경을 경험하였다(신준환, 2004). 이익의 '성호사설'(1760년경)을 보면 "고려 승려 도선의 '옥룡기'에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일어나 지리에서 끝났으니 물의 근원, 나무줄기의 땅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이증환은 택리지(1751)에서 '대간'이라는 용어를,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조선후기의 산경표(1770년경)에서 백두대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당시 조선의 산줄기 이름을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표현하였다.

이 땅의 모든 산줄기가 백두산과 통한다는 개념은 조선시대 이래 우리 민족의 자연인식체계를 이루는 주요한 틀이었다. 그러므로 백두대간은 전통지리학을 포함한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품고 있는 정신문화의 근원지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생활영역과 양식의 기반이 되는 민족의 인문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연식생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 자연환경의 모체이고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생명력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국토의 허파지대와 심장을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게 가꾸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전의 출발점이고 관건이라 하겠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1) 기후 및 기상

백두대간의 남한지역 중 최북단인 향로봉에서 피재까지의 동쪽사면은 동해와 인접하여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서쪽사면과 지리산까지의 내륙지역은 내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백두대간은 전체적으로 온대계절풍 지대에 속하며, 내륙에 위치한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기후 패턴을 보이는데,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지역은 여름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겨울에 강설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백두대간 주변지역 중 30년간의 기후자료(1971년~2000년) 수집이 가능한 17개 시, 군의 기후를 분석한 결과(표 1), 연평균 기온은 약 6.4~12.9℃, 일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8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2.9~30.9℃, 온도가 가장 낮은 1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3.3~12.5℃의 분포를 보였다. 연평균 강수량은 1,114.1~1,717.1mm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 중 식물성장기인 4월에서 9월까지 69.6~85.3%의 강수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상관측소의 위치가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금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백두대간 보전지역의 실제 기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백두대간의 온량지수범위는 55~85로 같은 위도의 주

변지역에 비해 온도가 낮고 강수량도 대관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Yim and Kira, 1975).

표 1.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30년간(1971년~2000년) 기온 및 강수량. (출처 : 기상청, 2005)

지역	기온(℃)			강수량(mm)		
	연평균	월평균 최고	월평균 최저	연평균	식물 생장기 강수율(%)	비생장기 강수율(%)
강릉	12.9	28.2	-3.3	1,401.9	69.6	30.4
태백	8.6	25.3	-9.9	1,307.6	80.8	19.2
속초	12.1	26.7	-3.8	1,342.4	73.2	26.8
대관령	6.4	22.9	-12.5	1,717.1	75.9	24.1
홍천	10.1	30.1	-11.6	1,291.3	84.7	15.3
인제	9.9	28.6	-11.0	1,114.1	85.3	14.7
충주	11.2	30.0	-9.4	1,187.8	82.3	17.7
추풍령	11.6	28.8	-6.1	1,160.1	79.2	20.8
제천	10.0	29.2	-11.1	1,295.1	82.1	17.9
보은	10.7	29.4	-9.6	1,260.0	81.6	18.4
영주	11.2	29.6	-8.6	1,236.9	83.3	16.7
문경	11.9	29.8	-6.7	1,205.4	82.7	17.3
봉화	10.0	29.0	-9.9	1,178.7	82.8	17.2
산청	12.7	30.3	-4.8	1,479.2	82.7	17.3
거창	11.5	29.5	-7.4	1,265.9	81.5	18.5
남원	12.2	30.9	-6.8	1,313.9	80.2	19.8
장수	10.4	28.3	-8.2	1,422.1	80.1	19.9

2) 지형 및 지질

백두대간 남한지역의 표고 분포는 향로봉(1,287m)을 시작으로 대청봉(1,708m), 태백산(1,567m), 소백산(1,440m), 속리산(1,057m)까지 길게 산악지역을 형성하고, 이후 추풍령 주변에서 급격히 낮아졌다가 덕유산(1,614m)에서 솟구쳐 산악형 지역을 형성하며, 다시 지리산 자락에서 천왕봉(1,915m)으로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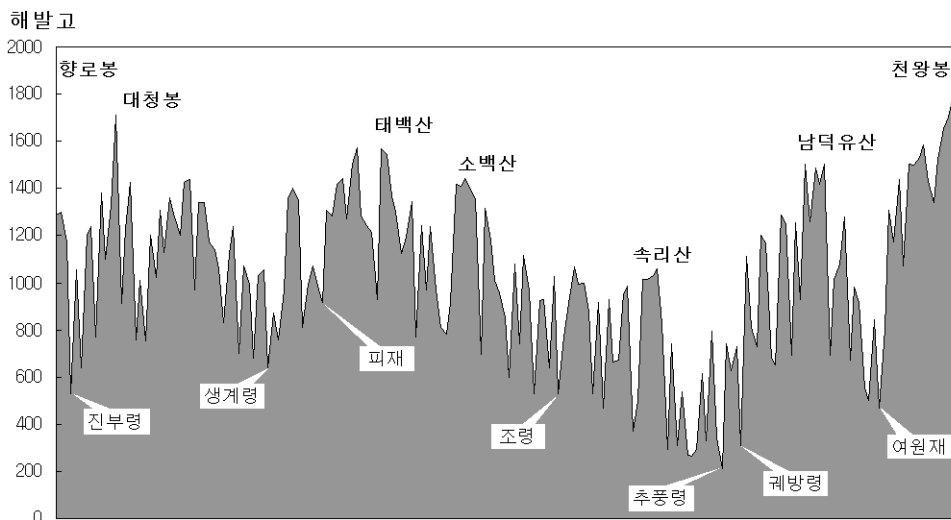


그림 7. 백두대간 남한지역의 해발고도. <자료: 임업연구원, 2003(재구성)>

백두대간의 동쪽사면은 경사가 심하고 사면 길이가 짧으며, 서사면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내륙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이어지는 형세를 보인다. 특히 한반도의 동쪽을 따라 내려오는 백두대간에 의해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지형구조인 동고서저(東高西低)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질은 지역에 따라 화강편마암류, 변성퇴적암류, 화강암류 등 다양한 모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다. 화강암 산지는 풍화에 의한 암반 및 암석 노출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대관령 일대는 사질토의 평활한 지형 구조를 보이지만 반복적인 적설과 융설에 의한 토양 유실이 많다. 미시령 일대 등의 편마암 산지는 풍화물이나 토양으로 덮여 있는 토산으로 구성되어 점토를 포함한 미립물질이 많아 식물생장에 유리하며, 강원도 정선의 자병산과 석병산 일대, 그리고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석회암 산지는 물의 용해작용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을 이루어 급사면의 뾰족한 봉우리가 많고 토양은 얇고 불규칙적이며, 오목하게 지면이 들어간 돌리네, 석회동굴 등 독특한 지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식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양은 사양토, 식양토 및 사토로 구성되어 있어 토질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3) 식물상 및 식생

(1) 식물상

현재까지 백두대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계 정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까지 조사된 임업연구원(2003)과 녹색연합의 백두대간 환경대탐사(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일부구간 제외)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5강 126과 541속 1,248종 3아종 204변종 22품종 총 1,477종류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반도 전체 관속식물의 약 35.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임동욱, 2003). 그러나 백두대간 주변의 사면과 계곡지역까지 조사가 확대된다면 식물의 종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대간의 식물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백산 일원의 도래기재~피재(산악형) 구간의 마루금과 좌우사면, 그리고 계곡부의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28종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 5종을 포함하여 106과 351속 639종 1아종 108변종 11품종 등 총 761종류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남덕유산~소사고개(준산악형) 구간에서의 식물상 조사에서는 91과 243속 353종 53변종 5품종 등 총 411종류의 식물이 보고되었으며, 산림청과 환경부 지정 희귀식물은 각각 10종, 2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지리산 지역 중 여원재~만복대(비산악형) 구간에서는 104과 305속 439종 60변종 3품종 등 총 502종류의 식물이 서식하며, 산림청과 환경부 지정 희귀식물은 각각 8종과 1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임동욱 등, 2003).

조사된 식물 중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특산식물에 속하는 종은 54종이며,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등재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은 10종으로 보고되었다(표 2).

표 2. 백두대간의 희귀식물.

(출처 : 임동옥 등, 2003; 국립산림과학원 재구성)

수종명	과명	학명	산림청 보존순위	환경부 지정번호
구상나무	소나무과	<i>Abies koreana</i>	73	
눈잣나무	소나무과	<i>Pinus pumila</i>	32	
눈측백	측백나무과	<i>Thuja koraiensis</i>	123	
흑삼릉	흑삼릉과	<i>Sparganium stoloniferum</i>	42	
두루미천남성	천남성과	<i>Arisaema heterophyllum</i>	141	
백쪽나리	백합과	<i>Tricyrtis dilatata</i>	97	
땅나리	백합과	<i>Lilium callosum</i>	191	
말나리	백합과	<i>Lilium distichum</i>	159	
솔나리	백합과	<i>Lilium cernum</i>	37	보호 6
자주솜대	백합과	<i>Smilacina bicolor</i>	137	보호 7
큰연령초	백합과	<i>Trillium tschonoskii</i>	17	보호 8
연령초	백합과	<i>Trillium kamschaticum</i>	112	
꽃창포	붓꽃과	<i>Iris ensata</i> var. <i>spontanea</i>	197	
개불알꽃	난초과	<i>Cypripedium macranthum</i>	29	
왕개서어나무	자작나무과	<i>Carpinus tschonoskii</i> var. <i>eximia</i>	150	
꼬리겨우살이	겨우살이과	<i>Loranthus tanakae</i>	170	
등굴	취방울덩굴과	<i>Aristolochia manshuriensis</i>	57	
끈끈이장구채	석죽과	<i>Silene koreana</i>	143	
누른종덩굴	미나리아재비과	<i>Clematis chiisanensis</i>	114	
홀아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i>Anemone koraiensis</i>	126	
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i>Anemone narcissiflora</i>	79	
연잎평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i>Thalictrum coreanum</i>	89	보호 24
지리바꽃	미나리아재비과	<i>Aconitum chiisanense</i>	167	
너도바람꽃	미나리아재비과	<i>Eranthis stellata</i>	127	
모데미풀	미나리아재비과	<i>Megaleranthis saniculifolia</i>	7	
산작약	미나리아재비과	<i>Paeonia obovata</i>	30	보호 26
참고추냉이	십자화과	<i>Cardamine koreana</i>	210	
도깨비부채	범의귀과	<i>Rodgersia podophylla</i>	201	
톱바위취	범의귀과	<i>Saxifraga punctata</i>	20	
나비국수나무	장미과	<i>Stephanandra incisa</i> var. <i>quadrifissa</i>	188	
흰인가목	장미과	<i>Rosa koreana</i>	152	
붉은인가목	장미과	<i>Rosa marretii</i>	178	
개느삼	콩과	<i>Echinosophora koreensis</i>	19	보호 35
망개나무	갈매나무과	<i>Berchemia berchemiaefolia</i>	138	보호 40
태백제비꽃	제비꽃과	<i>Viola albida</i>	202	
참쭈샬풀	앵초과	<i>Lysimachia coreana</i>	181	
금강제비꽃	제비꽃과	<i>Viola diamantica</i>	27	
땃두릅나무	두릅나무과	<i>Oplopanax elatus</i>	35	
지리산오갈피	두릅나무과	<i>Acanthopanax chiisanensis</i>	58	
가시오갈피	두릅나무과	<i>Acanthopanax senticosus</i>	38	
등대시호	산형과	<i>Bupleurum euphorbioides</i>	50	
개회향	산형과	<i>Cnidium tachiroei</i>	180	
만병초	진달래과	<i>Rhododendron brachycarpum</i>	162	
흰참꽃나무	진달래과	<i>Rhododendron tschonoskii</i>	76	
꽃개회나무	물푸레나무과	<i>Syringa wolffi</i>	205	
산개나리	물푸레나무과	<i>Forsythia saxatilis</i>	166	
경향나무	물푸레나무과	<i>Syringa velutina</i> var. <i>kamibayashii</i>	204	
달꽃	용담과	<i>Halenia corniculata</i>	182	
미치광이풀	가지과	<i>Scopolia japonica</i>	208	
토현삼	현삼과	<i>Scrophularia koraiensis</i>	212	
만주송이풀	현삼과	<i>Pedicularis manshurica</i>	136	
금마타리	마타리과	<i>Patrinia saniculaefolia</i>	122	
도라지모시대	초롱꽃과	<i>Adenophora grandiflora</i>	216	
천마	난초과	<i>Gastrodia elata</i>	9	보호 15
애기등	콩과	<i>Milletia japonica</i>	-	보호 37
솜다리	국화과	<i>Leontopodium coreanum</i>	52	보호 52



분홍바늘꽃



모데미풀



가문비나무군락



금강초롱꽃

사진 1.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출처 : 임업연구원, 2003)

(2) 식생

백두대간 일대는 냉온대 산림대의 남부, 중부, 북부권역에 속하며, 대부분의 지역은 낙엽 활엽수림대이지만, 고도에 따라 온대북부, 온대중부, 온대남부의 임상이 혼재할 뿐 만 아니라 고지대에는 냉온대림, 한대침엽수림이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남한지역의 식생유형을 산림상관에 의해 분류한 결과, 총 49개 군락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자연식생군락은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등 42군락, 인공식재군락은 7개 군락으로 보고된 바 있다(표 3).

표 3. 백두대간 산림의 식생상관에 의한 군락 분류.

구 분		군 락 명
자연식생군락	산북부	소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박달나무, 물박달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개서어나무, 노각나무, 호랑버들, 청시닥나무, 시닥나무, 피나무군락
	계곡과 저지대	층층나무, 귀룽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까치박달,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느티나무, 들메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함박꽃나무, 복장나무, 굴피나무, 찰피나무군락
	고산지대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눈쭈백나무, 눈잣나무, 잣나무, 전나무, 사스래나무, 개박달나무군락
인공식생군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밤나무, 전나무, 주목 식재림

(출처 : 임업연구원, 2003)

국립산림과학원(구:임업연구원)에서는 백두대간 남한지역 중 향로봉~피재까지를 북부권

역, 피재~쾌방령까지를 중부권역 그리고 쾌방령~지리산까지를 남부권역으로 구분하고 산림식생의 종조성과 구조적 특성에 의해 식생단위를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4. 백두대간의 식생단위표.

구분	군락군	하위군락군	군락	하위군락	군
북부권역	2	4	11	6	6
중부권역	2	5	17	10	11
남부권역	3	4	10	8	-

(출처 : 임업연구원, 2003)

북부권역은 고지대 마루금과 산정부에 분포하는 식물들이 중심이 되는 시닥나무-사스래나무군락군과 산복부에 분포하는 조록싸리-물푸레나무군락군 등 2개 군락군으로 크게 대별되며, 4개 하위군락군, 11개 군락, 6개 하위군락 그리고 6개 군 등 총 17개 식생단위로 구분된다. 중부권역은 산복중상부 이상 적윤지의 당단풍-물푸레나무군락군과 산복중하부 건조지의 싸리-소나무군락군 등 2개 군락군, 5개 하위군락군, 17개 군락, 10개 하위군락, 11개군, 4개 아군 등 총 33개 식생단위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역은 고산지대의 사스래나무-구상나무군락군, 산복부 습윤지의 들메나무-고로쇠나무군락군, 산복부 건조지의 진달래-소나무군락군 등 3개 군락군, 4개 하위군락군, 10개 군락, 8개 하위군락 등 총 14개 식생단위로 구분되었다.

또한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동서유역의 1차, 2차, 3차 수계까지의 범위에 대해 수치임상도를 이용하여 산림자원 분포현황을 정리한 결과, 산림면적은 약 395,837ha로 전체 면적의 약 86.8%이며, 이 중 침엽수림은 약 26%, 활엽수림은 약 49%, 혼효림은 약 26%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임업연구원, 2003).

4) 야생동물

(1) 포유류

백두대간은 한반도 야생동물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야생동물 종다양성 유지를 위한 핵심공간이다.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파악은 산림지역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올바른 조사가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백두대간 전역에 걸친 정밀한 야생동물 서식과 이동 실태 조사는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백두대간이 관통하는 8개 국립공원 지역과 진부령, 삼당령, 백복령, 이화령, 여원재 등 총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포유류를 조사한 결과, 고라니, 너구리, 노루, 다람쥐, 담비, 두더지, 멧돼지, 멧토끼, 산양, 삥, 수달, 오소리, 족제비, 청설모, 표범 등 총 15종의 포유류가 조사된 바 있다. 이 중 노루, 족제비,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두더지 등 전 조사지역 모두에서 출현하였으며,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천연기념물 제 330호)과 산양(천연기념물 제 217호),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물인 삥과 담비, 그리고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표범(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임업연구원,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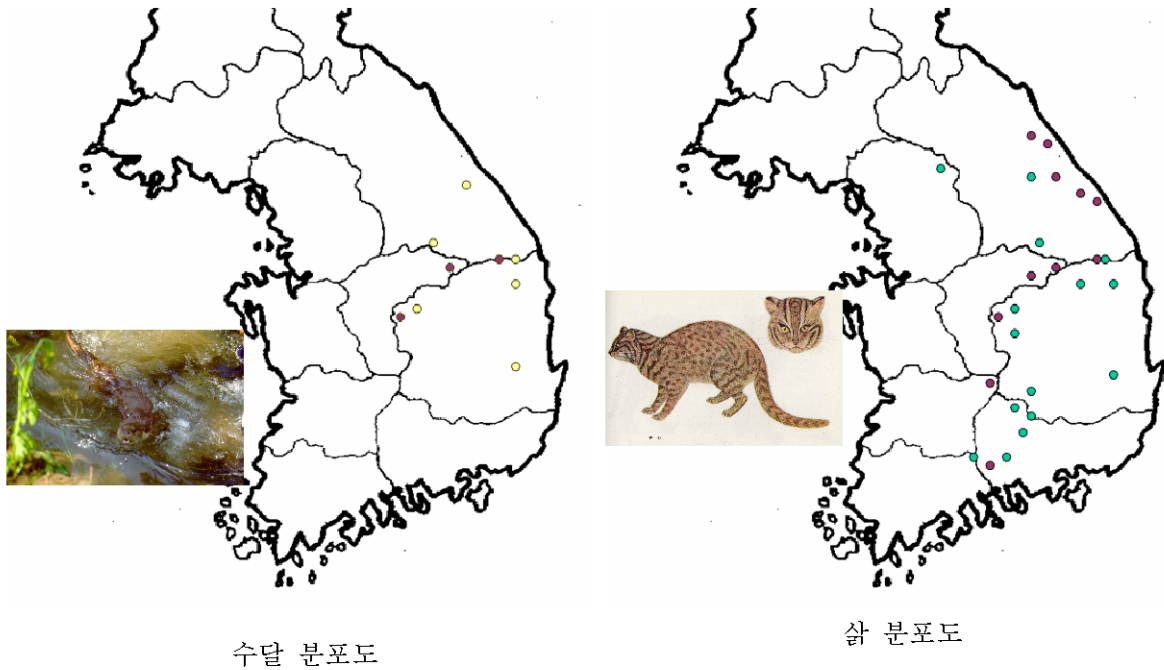


사진 2.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희귀동물 분포도.(출처 : 임업연구원, 2003)

(2) 조류

백두대간 중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도래기재~피재(산악형) 구간에서 조사된 야생조류는 총 9목 24과 57종 1,806개체이며(산림청, 2001), 덕유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소사고개~남덕유산(준산악형) 구간에서 조사된 야생조류는 총 5목 20과 54종 889개체로 보고된 바 있다(한국환경생태학회, 2002). 희귀 조류는 산악형 구간에서 천연기념물 제 327호인 원앙과 제 323호인 황조롱이가 조사되었으며, 준산악형 구간에서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조사되었다.

(3) 담수어류

도래기재~피재(산악형) 구간의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의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한강수계에서는 8종, 낙동강수계에는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한강수계에서는 금강모치, 미유기 등 2종, 낙동강수계에서는 쉬리, 긴물개, 돌마자, 수수미꾸리, 미유기, 자가사리, 꺾지, 동사리 등 8종의 한반도고유어종이 포함되었으며, 환경부 지정 보호 담수어류인 열목어가 두 수계 모두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복대~시리봉 구간의 섬진강수계와 낙동강수계의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섬진강수계에서는 17종, 낙동강수계에서는 1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섬진강수계에서는 갈납자루, 쉬리, 긴물개, 돌마자, 왕종개, 동사리 등 6종, 낙동강수계에서는 긴물개, 왕종개 등 2종이 한반도 고유어종이었으며, 희귀 어류로는 섬진강수계에서 환경부지정 보호야생동물인 다묵장어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백두대간의 훼손실태

이와 같이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그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환경훼손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백두대간은 산세가 험난하고 많은 위험요소들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람들의 발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능선과 계곡 등이 상당히 많다. 또한 최근까지 포장도로가 47개, 비포장도로가 25개, 총 72개 도로가 나 있는데 이러한 도로 개설은 생태계의 단절과 이분화를 유발시키고 서식처를 단절시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인 식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관광리조트 개발, 댐 건설, 광산개발, 송전탑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자원개발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주요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리산 관통도로, 제석봉 고사목지대, 양수발전소, 덕유산 관광지 개발, 자병산 석회광산, 태백산 공군 폭격훈련장 등은 대표적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구조물 훼손>남원시 고남산 정상의 통신시설



<식생 훼손>고랭지 채소재배(태백시 매봉산)

<지형 훼손>



자병산의 석회석 광산
(강원도 강릉시)

사진 3. 백두대간 유형별 훼손지 현황.(출처 : 산림청, 2005)

왜 생태적으로 관리·보존해야 하는가?

백두대간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능선이 단절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한편, 역사적, 생태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최근 들어 정부, 학계,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백두대간의 생태적인 관리와 복원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창출하는 모태라고 인식되어 왔으며, 이를 상징적

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백두대간이다. 지리인식체계를 대표하는 백두대간이야말로 우리를 낳고 살게 하고 쉬게 하였던 뿌리인 것이다. 이러한 백두대간은 국토의 허파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의 핵심 보고이자 인간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해주는 상수원으로, 또한 지리와 문화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백두대간이 생태계 보고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고도가 높은 산의 미기후로 인해 다양한 서식지가 조성되고 연결된 산계를 통해 종자 분산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토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으로서의 백두대간은 산림구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자원과 산소, 휴식처 제공 등의 공익적 기능과 목재, 임산물, 광물자원의 생산적 기능 그리고 생명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마루금 중심의 백두대간 생태계는 활동범위가 넓은 종의 서식처와 이동통로를 제공하여 종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생활양식의 기반이 되는 인문적 바탕이 되므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품고 있는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관리방향

백두대간은 산자분수령의 원칙에 따른 '이어진 산줄기'라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환경적 의미까지 더해져 백두대간 관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에 대한 성격 규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풍수사상에서 비롯된 비과학적 지리관이라고 치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다양성의 보고이므로 국토 생태축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두대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성격규명은 향후 올바른 관리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요하다. 그동안 백두대간은 우리 고유의 지형관을 대변하는 개념적 실체로서 회자되어 왔지만 그것이 현 시대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다. 백두대간 능선주변의 부분적인 생물조사에 따라 주요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정도로 제한된 백두대간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최영국, 2001).

우리가 백두대간을 진정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백두대간은 어느 일부분, 하나의 산줄기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체계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한창 유행을 타고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 위주의 행사진행이나 관리 범위 설정만으로는 우리 고유의 백두대간을 오늘에 제대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신준환, 2004).

다시 말해서 백두대간의 본래 개념이 '끊이지 않은 연속된 선(線)'이러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관리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산경표상의 주능선을 유지하여 능선을 가급적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 때 마루금 뿐만 아니라 산자락까지를 최소한의 관리범위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곳이라도 능선과 근접한 곳은 백두대간 개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범위의 설정목적이 대상공간의 계획적인 관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보존일변도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 및 백두대간 개념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보전과 이용방안 등을 염두해 두고 관리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두대간이 생태계 차원에서 건전하게 유지되고 생물다양성, 임목과 다양한 부산물의 생산, 온실가스 저감, 관광, 수자원 확보, 토지보전 등 백두대간 주변 지역 거주민들 뿐

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다양한 생태적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 국토에 있어서 백두대간이 갖고 있는 생태적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백두대간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비롯한 한반도 전체 생태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미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백두대간 연구는 우리 국토에 맞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백두대간 관리를 위한 과제로서는 첫째, 백두대간 개념의 정립, 둘째, 백두대간의 생태적인 관리와 복원방안 모색, 셋째, 우수한 자연환경의 생활 공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및 정체성 확립을 도모할 수 있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의 허파지대를 유지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보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두대간 전 구간에 걸친 자연생태계의 현황과 훼손실태를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이제는 굳이 현장 답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공위성자료(RS)와 지리적정보기법(GIS)을 통하여 백두대간의 현황과 훼손 실태, 나아가서는 산줄기의 유기적 관계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기술도 발전해 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백두대간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자연체계 즉 생태계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남북이 자연히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백두대간이란 개념은 잘만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통일의 대간이 될 것이다. 신라 말과 고려 초에 백두대간이란 개념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한민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자세로 백두대간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은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민족의 혈맥이다. 분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공간적 동질성은 존재하므로 남북한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백두대간이 21세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국토의 생태적 기반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Yim, Y. J. and T. Kira. 1975.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and climate in Korean peninsula III. Distribution of tree species along the thermal gradient. *Jpn. J. Ecol.* 25: 77-88.

기상청. 2005. 인터넷 제공자료 <http://www.kma.go.kr/new/index.html>.

산림청, 한국환경생태학회. 2001.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방안 조사 연구. p. 306.

산림청. 2005.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p 133.

신준환. 2004. 백두대간 관리범위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8(2):197~204.

임동욱. 2003. 백두대간 지리산 천왕봉-덕유산 향적봉의 식물상.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6(4) : 359-386.

- 임동옥, 김용식, 박양규, 유은미. 2003. 백두대간 만복대·고리봉·수정봉 일대의 관속식물상.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6(4) : 387-403
- 임업연구원. 2003.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p 420.
- 최병현. 2002. 도선의 풍수지리설과 고려의 건국이념.(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풍수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pp. 11~32.
- 최영국. 2001. 백두대간의 경관생태학적 해석. 월간국토 7월호. pp 88~100.
-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p 505.
- 한국환경생태학회. 2002. 백두대간(지리산 일원) 자연생태계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 현진상. 2000. 한글 산경표 - 우리나라는 산에도 족보가 있다. 도서출판 풀빛. p 347.
- 환경부, 녹색연합. 1998. 백두대간 환경대탐사 보고서. p 456.

백두대간의 문화역사

(주)코리아루트
김진순

백두대간의 문화유산

김진순(코리아루트 대표)

1. 백두대간 산간문화의 특징(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역으로, 백두대간은 이 산악지역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산간마을들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의 고유문화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백두대간 산간마을에 남아있는 고유 문화는 곧 한국의 민중들에게 전승되었던 대표적인 민속 문화라 할 수 있다.

백두대간 산간문화는 지역마다 독특한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강원도의 경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종주하면서 영동과 영서를 가르며 전 면적의 70%가 산지로 형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산악지역이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릉과 북평 근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백두대간 동쪽의 급경사지대로 평야가 많지 않다. 영서지역 또한 철원평야를 비롯하여 춘천, 원주, 횡성 등의 일부 지역에 평야지대가 있을 뿐, 산악지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해발 1,000m 가 넘는 높은 산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두타산과 같이 빼어난 경치로 유명한 산도 많지만 태백산, 가리왕산, 함백산, 육백산, 점봉산, 계방산 등은 강원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생활터전이었다. 흔히 생활터전이 되었던 산의 신은 여신이며 이러한 산을 모산(어머니 산)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산이 주는 혜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징은 백두대간으로 인해 영동과 영서가 양분된 것이며 이것은 민속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가령 강원도 언어를 보면 영서지역은 서울, 경기도와 인접한 관계로 거의 표준어와 가깝게 구사한다. 반면에 영동지역은 전혀 색다른 어휘를 구사하기도 한다.

표1. 강원도 영동·영서의 언어분화⁶⁾

표준어	영동언어	영서언어
왕겨	새째	왕개, 왕겨, 왕제
시래기	건추	시래기, 씨래기
두레	질	두레
누룽지	소쟁이, 소꼴기, 소디끼, 소데끼	누룽지, 누렁지, 누룽기
질경이	뺨짱우, 뺨짱우, 뺨짱우, 뺨짱구	질경이, 질경이, 질쟁이, 질짱구
우물	웅골	우물
잠자리	잠자리	소금쟁이
상추	불기	상추

6)이익섭, 『嶺東 嶺西의 言語分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209면-258면.

영동, 영서의 문화적 분화 현상은 민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 민요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가 나뉘어 지면서 각자 하나의 민요권을 형성한다. 두 지역의 민요는 특히 농업노동요 가운데 밭가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밭가는 소리>는 영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영서지역 대부분이 겨리소 소리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영동지역은 주로 호리소 소리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모심는 소리>는 영서지역에서 대부분 '미나리'를 불렀던 반면 영동지역에서는 주로 '아라리'를 불렀다. 영서지역의 논매는 소리는 선후창 집단노동요인 <단호리>, <상사대>, <방아소리> 등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영동 지역에는 교환창이나 선입후제창으로 부르는 <미나리>, <오독떼기> 등이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라리>는 두 지역의 뚜렷한 분화현상은 보이지 않으나 산악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민요이다. 주로 산에서 나뭇을 뜯거나 땀나뭇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이고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착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⁷⁾

강원도의 지리적 특징은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앞에서 살펴 본 언어와 민요의 사례만 보아도 영서지역은 서울, 경기지역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통이 불편했던 영동지역은 비교적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고유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강원도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역문화에는 분명히 타 지역과 구분되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은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2. 소멸위기의 백두대간 산간문화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는 뱃동우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백두대간의 한 줄기에 형성되어 최근까지 열한집이 살다가 모두 떠나고 지금은 빈집만 남아 있다. 즉 마을이 없어진 것이다. 강원도에는 근래에 들어 급속한 속도로 산간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강원도의 산간마을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왔다. 따라서 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지역의 전통문화가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방식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와 도시와 시골, 특히 시골과 산골의 경계를 삶의 방식에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 곳 사람들 대부분이 문화적 편리함을 추구하고 더 이상 고유문화의 정통성을 고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최첨단의 시대에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전통문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한 것은 국가 관계 기관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그리고 안일한 보호정책 때문이다. 이것은 광역적 의미에서 한국문화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책적으로나 삶의 방식으로나 서구 자본주의 문화에 편승하여 우리

이 연구서의 내용 중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뚜렷하게 양분되는 언어를 제시해 본다.

7) 김진순, 「강원도민요의 현상론적 연구」, 『관동민속학』 12집, 관동대 강릉무형문화연구소, 1997, 50면.

나라 고유 문화를 상실하고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세계화, 획일화에 동참한 셈이다.

아주 작은 산간마을에서 그들 나름대로 가꾸어 온 지역문화가 한데 모여 한국의 전통문화가 형성되었던 셈인데, 이제는 반대로 대도시에서부터 내려온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한국문화의 바탕이 되었던 지역문화마저 잠식해 버린 것이다. 마을이 사라지고 반대로 도시가 복적이는 현상이 단지 사회학적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마을이 없어지고 따라서 전통문화가 함께 소멸됨으로써 지역문화의 기반인 문화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백두대간의 훼손과 관광지의 확대에 의한 전통 산간문화의 소멸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발표자는 2001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백두대간 산간문화의 종합조사와 영상기록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조사당시에도 1년 사이에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며, 뿐만 아니라 조사이후 태풍 '루사'와 '매미', 그리고 폭설로 인한 현장의 소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현장의 보호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인의 전통생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고유문화의 현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3. 백두대간 산간문화의 현황

- 영상기록과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3-1. 조사기간

2001년 11월 ~ 2003년 3월(약 17개월 / 350여 일 현장답사)

3-2. 조사 지역

- 약 500여 곳(450여 개 마을 / 50여 개 산, 고개)
- 조사 지역별 분포 : 백두대간에 가장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함.
 - 전라남도 - 구례군
 - 전라남도 - 남원시, 장수군, 무주군
 - 경상남도 -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경상북도 -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 충청북도 -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강 원 도 -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동해시, 강릉시,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 백두대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산마을
(***산과 아주 가까운 마을 / ** 가까운 마을 / * 보통)

사례 1) 진부령~상봉구간 산간마을들
고성군 간성읍 홀리***/진부리***-----서
죽왕면 선유실리/마좌리**-----동

토성면 도원리*-----동
토성면 성대리*-----동

사례 2) 상봉 ~ 단목령구간 산간마을들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원암리*-----동
인제군 북면 용대리(창암,용대마을)**-----서
속초시 설악동**-----동
양양군 서면 오가리**-----동
// 마산리**-----동
// 백암리*-----동

사례 3) 단목령 ~ 구룡령구간 산간마을들

양양군 서면 북암리***-----동
// 송천리/공수전리/영덕리/서림리/황이리/갈천리**-----동
인제군 기린면 삼거리***-----서
// 강선리/진동리(설피밭,쇠나드리***)/조정동**-----서

사례 4) 구룡령 ~ 노인봉구간 산간마을들

홍천군 서면 명개리(명지리,약수동***)/내청도리/외청도리/목맥동*-----서
// 내면 척천리*-----서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구곡동)**-----서
// 탐동리(화사거리)*-----서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개잔***)-----서
양양군 현북면 범수치리-----동
강릉시 연곡면 부연리(가마소,머구재)**-----동
// 구지리(전후치)-----동

사례 5) 노인봉 ~ 대관령구간 산간마을들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외동*,내동**)-----동
// 신왕리(수정동)**/퇴곡리*-----동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용수골***-----동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초막곡,반정***-----동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횡계리**/차항리**/진고개 마을***-----서
(가시머리,삼한,소동,동녘골,서녘골,안거래지)

3-3. 조사내용

- 의식주

- 1) 옷과 문화 : 직물제조 / 천연염색 / 주요한복 외
- 2) 음식과 문화 : 자연먹거리(민족식물)/보릿고개 먹거리/전통지역음식 외
- 3) 집과 문화 : 귀틀집/뽕방집/너와집/굴피집/삿집 외

- 일생의례

- 1) 출산의례 : 주요 출산의례/기자치성 장소/전통태교/전통육아 외
- 2) 백일 / 돌 / 생일 / 회갑 / 진갑 : 주요 의례 및 풍습, 장소
- 3) 관례(성인식)
- 4) 혼례
- 5) 상례 : 전통 장례 풍습/상여/상여집/상여놀이/명당지 외
- 6) 제례 : 주요 제례풍습

- 민간신앙

- 1) 마을신앙 : 동제/기우제/장승제/숫대제/서낭당/당산/조산/산제당 외
- 2) 가정신앙 : 안택/티고사/성주/조왕/삼신/칠성/세존/말명/업신 외
- 3) 무속신앙 : 마을굿/집안 굿/독경/산메기 외
- 4) 풍수지리
- 5) 점복 / 주술 / 혼신 / 도깨비
- 6) 기타신앙 : 산치성/자연물(바위, 나무 등) 관련 신앙의례와 장소

- 생업풍습

- 1) 화전민속
- 2) 참숯굽기
- 3) 사냥
- 4) 토종별 : 석청/목청 외
- 5) 식물채취 : 십마니/약초꾼/석이꾼 외
- 6) 공예 : 나무/한지/흙/짚/매듭/도자기 외

- 생활도구 : 농기구/집안살림도구/사냥도구/어구/기타 생활도구

- 오일장 / 장터 옛길

- 민간의료 : 민간요법 / 치병의례 / 우리약초

- 세시풍속 : 명절 / 24절기 / 생업력 등

- 민속예술 : 민속놀이 / 민속축제 / 민속춤 / 농악

- 구비전승

- 1) 설화 : 신화 / 전설 / 민담 / 동화 외
- 2) 민속시가 : 민요 / 전래동요 / 판소리 / 무가 외
- 3) 민속언어(속담, 수수께끼, 재담, 욕, 육담, 금기언, 속언, 은어)
- 4) 백두대간 사람들의 생존방식에 얽힌 이야기 / 조상들 이야기

3-4. 조사 결과물 항목과 사진과 동영상 자료

가. 분류별 항목자료

표2. 음식, 주거, 복식, 생활도구 분류

음식	주거	복식	생활도구
메주	귀틀집	삼베짜기	절피(만들기, 신기)
김장	(윤관집/투방집)	물레질	대나무스키
꽃감	흙집	돌것	(만들기, 타기)
장담그기	돌집	삼삼기	왕골자리짜기
팔죽	기와집	빨래터(빨래하기)	디딜방아
순대국집	초가집	삼밭	쟁기(밭갈이)
콩죽	굴피집	헛대보	바구니 만들기
맷돌질	너와집		짚신삼기
씨래기	돌기와집		절구질
절구질	상량식		맷돌질
떡	주거생활		호미(김매기)
도토리묵	장작(툽질 외)		종다래끼(콩심기)
강냉이엿 만들기	돌담		씨래질(논살기)
밥상	아궁이고치기		소달구지
송편	김치광(초가 외)		작두질
자연먹을거리(쪼/절레/	뒹간(초가)		키질
딸기/오디/다래 외)	쇠마장		대장간
고사리껌기	거름더미		툽질
감자부침	마굿간 외 공간		물지게
올챙이묵			
메밀전병			
밥짓기			
도토리묵			
봄나물캐기			
취나물뜯기			
나물삶기			

표3. 민간신앙 분류

동제당	가신신앙	당산제	서낭고사	
당산	집고사	황토/금줄/소제	신리서낭고사	대관령산신제
(전남/경남/전북)	성주	제물준비	장보기	대관령서낭제
서낭당	조왕	의례	금줄치기	대관령여서낭제
(경북/강원)	조상	소지올리기	돼지잡기	구산서낭제
동고사터	토주가리	길지뭉기	제물준비	학산서낭제
조산		음복례	마을회의	단천마을 산제
장승		우물고사	의례	산메기
솟대		풍물	소지올리기	천제
산제당			산신제	신주빚기
산신각			사태골서낭고사	미륵불 소원빌기
산신당			정성골서낭고사	단오굿
국시당			심마골서낭고사	망월제
			도마리서낭고사	수살대
			금줄만들기	부적
			신주빚기	

표4. 생업풍습 분류

생업풍습				
거름	피뽑기	옥수수	다락논	약초
들불농기	벼베기	감자	보리밭	호도털기
(논두렁태우기)	벚단쌓기	채소(배추/양파/	귀애(통나무수로)	밤줍기
밭갈이	탈곡하기	무/당근)	농막(초가)	똥돼지
콩심기	날가리	안반덕 고랭지밭	허수아비	참숯굽기
거름주기	도리깨질	기장	콩가리	고로쇠 채취
김매기	풍구질	깨	짚가리	뽕튀기
작두질	키질	고추	참깨잡이	목기제작
물쟁이질	물레방앗간(기계)	사과	담배	소
논두렁만들기	물레방앗간(전통)	포도	매실	닭모이주기
논삶기	벼(발벼)	토란	산수유	대장간
모판만들기	메밀	마늘	마늘	토종꿀
모내기	조	오미자	녹차	황태덕장
풀베기	수수	무장다리밭	나물	족대 물고기 잡기
				다슬기잡기

표5. 민속놀이, 세시풍속, 관혼상제, 장터풍습, 사찰 분류

민속놀이	세시풍속	관혼상제	장터풍습	사찰
아이들놀이 딱지치기 눈썰매타기 떡감기(물놀이) 잠자리잡기 굴렁쇠굴리기 종지윷놀이 장작윷놀이 풍물놀이 줄타기 씨름 그네 강릉농악 관노가면극 투호놀이 각설이(옛장수) 밀양백중놀이 수영야류 북청사자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삼복 풍습(천립) 추석 성묘 설 단오 별초 동지 지신밟기 입춘 복제 오곡밥 달집태우기 콩 집(정월대보름 날씨짐) 숫 집(정월대보름 날씨짐) 취불놀이 다리밟기 영등	제례(제실포함) 시제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 장례풍습 상여집	구례장 장계장 임계장 산청장 정선장 덕산장 옥산장 가은장 마천장 운봉장 산동장 강릉단오제 난장	벽송사 각연사 법주사 월정사 대흥사 백련사 송광사 선암사 천왕사 삼화사 보현사 삼층석탑 민간에 전하는 미 륜불 다수

표6. 고개, 강계곡·폭포, 산, 유물, 유적, 기타 분류

고개			강계곡·폭포		산
진부령	피재	조령	덕천강	도원천계곡	지리산
미시령	만향재	이화령	섬진강	미인폭포	덕유산
한계령	싸리재	상주큰재	부수배리 계곡	수옥폭포	설악산
조침령	화방재	피반령	의 사계절	장각폭포	소백산
구룡령	도래기재	신의터재화령재	남한강	삼직폭포	태백산
진고개	마구령	밤머리재	내린천	용추폭포	두타산
대관령	추풍령	성삼재	피아골	쌍폭포	오대산
삼당령	소사고개	정령치	무주구천동계곡	수옥리 저수지	속리산
달그목재	도마령	여원재	무릉계곡	둔전리 저수지	각고산
백복령	질메재	육십령	물한계곡	황지연못	
댓재	죽령		내원리계곡	펠레약수	
건의령	문경새재		추대계곡	오색약수	
			진동계곡		

표7. 유물유적, 기타 분류

유물유적	기타
갈천서당 미륵불 신봉리 석조보살입상 미륵사지 5층석탑 미륵사지 석불입상 미륵사지 둔전사지 석탑 외 진전사지 부도 외 서림사지 석조불상 외 황이리 삼층석탑 외 오전리 석불좌상 정암사 수마노탑 삼층석탑 주거 유형문화재 라제통문 무송대 연주패옥(말무덤)	갈대밭 민간요법(삼눈 외) 마을전경 홍부유적지 논개유적지 굽벙이 꽃뱀 야생화 소나무 시골분교 추전역 철로-나한정 스위치백 백두대간 태풍피해 현장 등

나. 항목별 사진자료와 백두대간 산간문화 파일럿 프로그램(시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엇이 필요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숙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엇이 필요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숙경
skshim@unesco.or.kr

그동안 각계에서 이루어진 백두대간 보전 활동의 성과에 힘입어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9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 고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이제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의 가치를 함께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계유산 관련한 기본 자료와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제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세계유산의 기준과 신청 및 등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백두대간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참고할 만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과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세계유산의 기준과 절차

1)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하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곳이다. 세계유산협약이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인류의 유산 중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을 인류 공동으로 자연적·인위적 파괴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의 영토에 있는 유산지역을 전 세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등재하여 보존하고 관리한다. 2006년 2월 현재 181개국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102번째), 북한은 1998년(153번째)에 가입하였다.

세계유산 표장 (Emblem)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상호의존성을 상징한다. 세계유산 표장의 중앙에 있는 사각형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형식을, 원은 자연을 대표하며, 이 둘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표장의 원형 모양은 세계와 보호를 상징한다.

2) 세계유산의 종류와 등재 현황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그리고 문화유산의 기준과 자연유산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유산(mixed heritage)**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계유산협약에 의하면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1.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물: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 • 건조물군: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결된 건물들 • 유적: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이나 생성물의 일군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특성 • 과학 또는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地文學)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 과학, 보전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지역이나 정확히 구획되어진 자연지역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역

2006년 2월 현재 137개 협약 가입국의 **812건의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있다. 이 중에 **문화유산이 628건, 자연유산이 160건** 그리고 **복합유산이 24건**이다. 매년 6-7월경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신규 유산 등재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7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모두 문화유산이다. 석굴암·불국사(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이다.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으며, 2006년 1월말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⁸⁾을 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3) 세계유산 등재의 영향

세계유산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유산지역으로 등재된다고 하여 그 국가의 해당 유산지역에 대한 주권이나 소유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⁹⁾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유산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립된 **세계유산 기금(World Heritage Fund)**과 여타 기여금을 통해 유산지역의 훼손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의 연구, 보전방안 수립, 보전이나 개선 기법에 대한 지역 전문가 훈련, 보호구역의 보호나 유적 복구를 위한 장비 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세계유산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방문지 또는 관광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국제적 라벨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¹⁰⁾ 많은 국가와 지역이 이러한 측면을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고용과 수입을 확대하기도 한다.¹¹⁾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당 유산지역에 대해 자부심과 유산 보호에 대한 국내외적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

4) 세계유산의 기준과 절차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과 절차는 “세계유산협약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2005년 2월)에 제시되어 있다. 모두 10개 기준이 있으며 이 중에 6개 기준은 문화유산에, 4개 기준은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아래에 있는 기준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8) 세계유산 기준 7번, 8번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여 신청하였다.

9) 세계유산협약 제6조 1. 협약가입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 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 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경우에 그 유산이 영토 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은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또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은 해치지 아니한다.

10) 많은 세계유산지역들이 실제로 유명한 관광지이거나 흥미로운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지만, 세계유산의 선정과 평가는 학술적, 전문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11) “세계 유산 지역은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됨으로써 곧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관광 자원이 된다. 국토의 30퍼센트 이상이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관광업이 점점 더 호황 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이들 유산 지역의 명성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 예로 카카두 공원(세계유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객의 80퍼센트 정도가 카카두 공원이 세계 자연 유산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며 40퍼센트는 그러한 사실이 공원을 방문한 유일한 목적이라 답했다고 한다. ” (출전: No. 55, Sources, UNESCO, February 1994)

표2. 세계유산 기준과 해당 사례
(문화재청, 2005.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기 준	적용 예	비고
(i) 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 석굴암 · 불국사 만리장성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 돈황 막고굴 ◀	문화유산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정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경주역사지구 ▶ 수원 화성 ▶ 창덕궁 만리장성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 돈황 막고굴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경주역사지구 ▶ 고인돌(고창, 화순, 강화) ▶ 수원 화성 만리장성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 돈황 막고굴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 석굴암 · 불국사 ▶ 해인사 장경판전 ▶ 종묘 ▶ 창덕궁 만리장성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 돈황 막고굴 ◀	
(v) 문화(복수의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사람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돈황 막고굴 ◀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 문학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 되어야 한다(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해인사 장경판전 만리장성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 돈황 막고굴 ◀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 태산 ◀ 러시아 바이칼호 ◀ 베트남 하롱만 ◀	자연유산
(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러시아 캄차카화산 ◀ 미국 그랜드캐년 ◀ 캐나다 공룡주립공원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일본 야쿠시마 ◀ 일본 시라카미산지 ◀ 미국 하와이화산국립공원 ◀	
(x)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중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해야 한다.	일본 시레토코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열대공원 ◀ 중국 황산 ◀	

우리가 흔히 ‘세계유산으로 지정’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유산 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산을 자국의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올리는 것이다.¹²⁾ 우리나라는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가 문화재청장에게 잠정목록 대상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잠정목록 신청 대상을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는 잠정목록에 올라있는 신청지역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9월 30일까지 예비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¹³⁾ 해당 국가는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나, 매년 2월1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다음해에 등재여부가 결정되고, 2월1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그 다음해(2년 후)에 처리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모두 신청 및 등재 절차는 같다. 세계유산 신청과 등재 절차를 관련된 기관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기관 별로 본 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 절차



12)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을 적어도 1년 전에 자국의 잠정목록에 올려야 하고, 적어도 10년에 한번 잠정목록을 재심의 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13) 이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나 이를 통해 최종 신청서 제출 전에 미비사항을 검토받아 보완 할 수 있다.

14) 1992년 설립되었으며 유네스코 내에서 세계유산 관련 사항을 연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심사, 등재 결정에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월1일까지

협약가입국은 유산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 사무국에 제출함.

▷ 2월 1일 - 3월 1일

사무국이 각 신청서를 등록하고, 등재 신청서를 평가하며, 관련 자문기관(ICOMOS 또는 IUCN)에 송부함. 만약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으면 다음해 2월1일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신청 및 심사 회기를 따르게 함.

▷ 3월 1일까지

사무국이 해당국에 접수된 신청이 완전한지 그리고 2월1일까지 접수되었는지에 대해 통보함.

▷ 3월 - 다음해 5월

자문기관이 평가 실시.

▷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문기관이 평가를 위한 추가 정보를 해당 국가에 요청함.

▷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해당 국가가 자문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사무국을 통해 제출함.

▷ 다음해 연례 세계유산위원회의 6주전까지

자문기관이 세계유산위원회와 해당 국가에 송부할 평가 및 권고를 사무국에 보냄.

* 세 가지 가능한 권고

(a) 무조건(유보 없이) 등재 권고

(b) 등재하지 않도록 권고

(c) 추가정보 요청(referral) 또는 보류(deferral) 권고

▷ 다음해 연례 세계유산위원회의의 개최 이틀 전까지

해당국이 평가결과에서 발견된 사실 오류를 정정하는 편지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 가능함.

▷ 다음해 세계유산위원회의(6월-7월) 기간 중

15) IUCN (World Conservation Union): 세계보전연맹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16) 세계유산위원회의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며 7명(의장 1, 부의장 5, 서기 1)으로 구성된다.

17)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지며 21개 협약가입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내림.

* 네 가지 가능한 결정

(a) 등재 (inscription)

(b) 등재불가 (not to inscribe)⁽¹⁸⁾

(b) 추가 정보 요청 (referral)⁽¹⁹⁾

(C) 보류 (deferral)⁽²⁰⁾

▷ 연례 세계유산위원회의 직후

신청한 모든 협약 가입국에 결과를 통보함.

이상은 국제적인 등재 절차이며 이와 관련한 국내 절차가 최근 문화재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해당 시·도지사는 신청서 제출 1년 전까지 문화재청과 등재 신청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준비상황 및 등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등재 신청하기로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신청 1차년도 전년 2월1일까지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²¹⁾

2. 관련 사례 검토

1) 1995 - 2006년도 설악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사례

설악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실패 경험을 살펴보면 자연유산이 문화유산보다 신청 자격과 준비가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는 사실과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추진의 방향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알 수 있다.

1995년 우리나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²²⁾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자문기관(IUCN)의 현장평가가 1996년 6월 실시되었다. 등재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최종 심사 전에 등재 신청을 철회하였다. 설악산의 평가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설악산의 자연적 가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나 지구적 차원에서는 충분치 않다. 가까운 금강산 및 동일한 생물지리권역에 있는 여타 유사한 세계유산지역의 중요성에 미치지 못한다. 설악산 자체로는 세계유산 신청서의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18) 예외적인 경우(새로운 발견, 새로운 과학정보, 다른 신청기준 등)를 제외하고 재신청할 수 없다.

19) 3년 이내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추가정보를 제출하여 재검토 받을 수 있다.

20)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심사 받는다.

21) 전국에 분포하는 유산이나 국유 유산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다.

22) 현재 기준 체계에 의하면 7번, 10번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등재 불가를 권고한 이유는 관광개발 압력, 희귀종 및 특정 임산물 밀렵/불법채취, 과다 관광객의 영향, 그리고 분산된 행정체계와 장기 계획의 부재 등이다. 평가서를 보면 그동안 이야기된 것과 달리 설악산 지역주민의 반대는 실제로 평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가 보고서에 등재 반대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있으나, 이를 지역의 사업적 이익을 갖고 있는 소수 집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 국가정부가 등재에 전적인 지지하고 있다고 보았다.²³⁾ 또 신청서에 수록된 많은 생물종들(예: 호랑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그 당시 작성된 신청서의 부실함과 기본적인 생태계 연구 부족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3건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킨 경험이 있었으나, 문화유산과는 다른 자연유산의 특성과 차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결과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보고서는 백두대간의 주요 산들을 '연속 지역(serial site)'(클러스터 형태)으로 신청한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 봤다. 금강산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리산, 오대산과 비무장지대의 연관된 자연서식지를 포함하는 백두대간 지역을 재신청 가능한 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금강산을 세계유산지역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²⁴⁾ 시민단체(금강산사랑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금강산이 복합유산으로 신청, 등재될 수 있도록 남한의 시민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2004년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기여한 남북한 협력이 전례의 하나로 이야기 되었다.²⁵⁾

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의 현황

세계보전연맹(IUCN)은 세계자연유산의 지구적 전략에 관한 시리즈를 발간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생물군계에 있는 세계유산지역들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2002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²⁶⁾의 현황을 평가하였다.²⁷⁾

세계유산지역으로 등재된 생물군계에서 내륙습지, 해양 및 연안지역과 함께 산은 가장 숫자가 많은 유형이다.²⁸⁾ 2002년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 보호지역은 총

23) 실제로 등재를 환영하는 산악인, NGO들의 행사와 현수막들도 있었다.

24) “제1차 금강산사랑운동 세미나 - 금강산과 세계유산” (2004. 9.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

25)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많이 알려져 있어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26) 이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보호지역 내에 최소한 1500m인 relative relief가 있고,
- 최소한 크기가 10,000ha 되고,
- IUCN 보호지역 분류 I-IV에 해당해야 함.

27) IUCN, 2002. A Global Overview of Mountain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55건으로 이 중에서 자연유산은 44건, 복합유산은 10건이었다. 23건의 복합유산(2002년 현재)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세계적 분포를 생물지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신열대구(Neotropical)와 구북구(Palearctic)²⁹⁾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산악지역인 극지방과 중앙아시아에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적합한 산들을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크기를 보면 가장 작은 곳(황산, 에미산)이 15,400ha이고 가장 큰 곳(성 엘리아스 산악공원군)은 984만 ha이며, 중앙값은 285,000ha이다.³⁰⁾ 많은 경우 산맥이 국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 2002년까지 8개 접경 세계자연유산 중에 5곳이 산이며 앞으로 추진할 만한 곳들이 더 있다. 인간 이용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시 야생지는 거의 없으며 반 이상의 지역에서 상업적 또는 생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영구 거주민들이 있다. 또한,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들은 다른 유형의 생물군계보다 방문객이 더 많은데 세계자연유산의 전체 방문객의 약 72%에 해당한다.

3. 문제제기와 제안

1. '백두대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앞서 먼저 '백두대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으면 한다. 국제적인 곳으로 지정되면 보호와 관리의 여러 문제들이 저절로 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을 이끌어 가게 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우리의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특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보호지역(세계유산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람사지역)을 더 많이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적인 보전 협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2. 세계유산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들을 선별하여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이기는 하나 모든 상황과 가치를 다 고려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될 수 없다.³¹⁾ 세계유산 나름의 목적과 기준, 이에 따른 강조점과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검토하는 데서 맨 먼저 고려할 점은 대상 지역

28) 지표면의 약 30%가 산이며 세계 전체 보호지역의 40%가 산이다.

29) 아시아, 유럽, 아랍지역의 온대, 한대 지방

30) 최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핵심구역의 면적은 169,950 ha이다.

31) 한 예로, 세계유산은 지구적 차원의 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한 마을 또는 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의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세계유산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가능성이 큰 기준이 파악되면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여타 지역들과 비교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파악된 가치가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국한되는 것인지를 냉철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백두대간이 한민족에게 갖는 역사, 문화, 사회, 자연적 가치는 우리 국민, 또는 남북한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세계적, 지구적 차원에서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세계유산 기준에 근거하여)를 갖는지를 규명하고 (학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두대간의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복합유산으로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유산보다 자연유산이 신청 준비나 등재 결정을 받기가 더 어렵고,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기에 준비가 더 복잡하고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간의 심각한 수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자연유산과 복합유산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의 경우 물론 자연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평가, 보전 노력도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4. 백두대간의 일부인 설악산이 이미 세계유산으로 신청되어 평가받은 적이 있으므로 백두대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경우 이전의 설악산의 평가 결과가 심사의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위의 설악산 사례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구적 및 생물지리적 차원에서 백두대간의 가치(적어도 자연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그 대상이 백두대간의 절반이 아닌 전체인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최근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지역, 특히 자연유산지역들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등재 범위는 설악산의 평가에서 권고된 것처럼 백두대간의 핵심 보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속 등재(serial nomination)’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북한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대두된다.³²⁾

5.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국제 보호구역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장기적인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관리체계와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백두대간의 경우 국립공원 등 여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광역적인 백두

32) 남북한 협력으로 ‘한반도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간의 보호, 관리가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책과 활동이 백두대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유산(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에 내놓을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하고 남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의 목록(2002년도 등재 현황)

* N: 자연유산, C: 문화유산

아르헨티나

- 1) Los Glaciares (N / 1981)
- 2) Ischigualasto - Talampaya Natural Parks (N / 2000)
- 3) Tasmanian Wilderness (N, C / 1982,1989)
- 4) Heard and McDonald Islands (N / 1997)

불가리아

- 5) Pirin National Park (N / 1983)

캐나다

- 6) Nahanni National Park (N / 1978)
- 7) Canadian Rocky Mountain Parks (N / 1984, 1990)

캐나다와 미국

- 8) Kluane/Wrangell-St Elias/Glacier
- 9) Waterton 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 (N / 1995)

중국

- 10) Mount Huangshan (N, C / 1990)
- 11) Jiuzhaigou Valley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 (N / 1992)
- 12) Huanglong Scenic and Historic Interest Area (N / 1992)
- 13) Mount Emei Scenic Area, including Leshan Giant Buddha Scenic Area (N, C / 1996)
- 14) Mount Wuyi (N,C / 1999)

코스타리카

- 15) Guanacaste Conservation Area (N / 1999)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 16) Talamanca Range-La Amistad Reserves/ La Amistad National Park (N / 1983, 1990)

콩고민주공화국

- 17) Virunga National Park (N / 1979)
- 18) Kahuzi-Biega National Park (N / 1980)

에콰도르

- 19) Galápagos Islands (N / 1978, 2001)
- 20) Sangay National Park (N / 1983)

에디오피아

- 21) Simen National Park (N / 1978)

프랑스와 스페인

- 22) Pyrénées - Mont Perdu (N, C / 1997, 1999)

그리스

- 23) Mount Athos (N, C / 1988)

인도

24) Nanda Devi National Park (N / 1988)

인도네시아

25) Lorentz National Park (N / 1999)

일본

26) Shirakami-Sanchi (N / 1993)

케냐

27) Mount Kenya National Park/Natural Forest (N /1997)

말레이시아

28) Kinabalu Park (N / 2000)

29) Gunung Mulu National Park (N / 2000)

네팔

30) Sagarmatha National Park (N / 1979)

뉴질랜드

31) Te Wahipounamu - South-West New Zealand (N / 1990)

32) Tongariro National Park (N, C / 1990, 1993)

니제르

33) Air and Ténéré Natural Reserves (N / 1991)

파나마

34) Darien National Park (N / 1981)

페루

35) Historic Sanctuary of Machu Picchu (N, C / 1983)

36) Huascarán National Park (N / 1985)

37) Manu National Park (N / 1987)

38) Río Abiseo National Park (N, C / 1990, 1992)

러시아연방

39) Virgin Komi Forests (N / 1995)

40) Volcanoes of Kamchatka (N / 1996, 2001)

41) Lake Baikal (N / 1996)

42) Golden Mountains of Altai (N / 1998)

43) Western Caucasus (N / 1999)

44) Central Sikhote-Alin (N / 2001)

남아프리카공화국

45) uKhahlamba / Drakensberg Park (N, C / 2000)

스위스

46) Jungfrau-Aletsch-Bietschhorn (N / 2001)

우간다

47) Rwenzori Mountains National Park (N / 1994)

탄자니아

48) Kilimanjaro National Park (N / 1987)

미국

49) Yellowstone (N / 1978)

50) Grand Canyon National Park (N / 1979)

51) Olympic National Park (N / 1981)

52) Great Smoky Mountains National Park (N / 1983)

53) Yosemite National Park (N / 1984)

54) Hawaii Volcanoes National Park (N / 1987)

베네주엘라

55) Canaima National Park (N / 1994)

<참고문헌>

문화재청. 2005.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매뉴얼

금강산사랑운동본부 주최 “제1차 금강산사랑운동 세미나 - 금강산과 세계유산” 발표자료집
(2004. 9.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

산림청 자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 2005. 8. 30

IUCN. 2002. A Global Overview of Mountain Protected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World Heritage Center,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July 2002

UNESCO, Sources, No., 55, February 1994

<http://www.unesco.org/whc>

<http://www.ocp.go.kr>

토 론 문

백두대간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강경환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장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 특히 국내에 사례가 없는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이며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백두대간의 향후 장기 보존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취지와 기타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협약·제도들의 차이점과 그 등재 이점의 파악과 국내적으로 백두대간의 세계 유산적 가치의 규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일단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토론회의 발표 주제들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산간 문화 등 문화환경적인 가치의 규명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의 세계 유산적 가치 규명과 아울러 어떤 유형의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2006년 2월 현재 세계유산에는 628곳의 문화유산과 160곳의 자연유산 그리고 24곳의 복합유산이 있다. 숫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문화유산에 비해서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의 등재는 그 준비과정이나 추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준비 또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가지 중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기준은 4가지이며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보편성을 지닌 심미적 가치, 지질학적 진화의 가치, 생태학적 진화의 가치, 또는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어야 한다.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해당 문화의 context 안에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 문화권 내에서의 고유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 유산이면 곧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유산은 문화유산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유사 유산과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재 기준의 적용이 훨씬 엄격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4곳밖에 없는 복합유산의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등재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그리고 성산일출봉 응회구를 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제주도와 같은 경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94년 9월에 처음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01년에 제주도 자연유산지구로 확대되었고, 2002년 3월

에 차기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되어 근 4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신청하였다. 제주도는 자연유산의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산으로 신청서가 작성되었다. 뛰어난 심미적 가치에 대한 기준과 지질학적, 지형학적으로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의 기준의 두 가지이다. 2002년부터 신청서를 내기 직전까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제주도 내에서의 지정 구역 선정과 함께 선정된 구역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이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면서도 해당 구역들 간의 완전성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 시 그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법적,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사 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입증이었다. 백두대간 역시 구체적인 영역 구획과 지정된 영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그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산이 등재된 예가 많지만 그 중에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경우와 산간문화까지 포함하여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경우들이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 등재한 피레네 산맥과 중국의 황산의 경우가 그렇다. 백두대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식생과 지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산간문화나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백두대간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백두대간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조사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며 유산의 훼손이 진행 중에 있어 등재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 시에는 북한지역을 함께 등재해야 그 유산의 완전성(integrity)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영토 내의 백두대간과 연계한 trans-boundary site(접경유산)로 추진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가 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큰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유산이 유네스코에서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신청 철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신청과정에서의 신청 범위의 조정 등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신청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가능성

서제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한반도 자연의 상징이자 중추인 백두대간이 법으로 지정되었다. 백두대간은 수백 년 이어져온 우리 국토에 관한 정신문화적 재산이자, 경험과학이다. 같은 동양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우리만의 자연인식체계다. 현상적으로 보면 산지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천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산지와 하천을 통일적으로 인식한 땅에 대한 탁월한 인식체계다. 이런 인식은 실제 백두대간의 자연자원적 가치에서도 그대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백두대간을 특별한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미 시행중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및 산림 분야의 독특한 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다. 이 점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자랑할만한 가치로 여겨진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연보호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고 그 경험은 100년의 역사를 넘는다.

현재 주요 자연관리의 모범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지구 개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립공원 혹은 지역공원(현립, 주립)이 있고 산림 관련법에 망라된 산림생태계보호법, 환경법과 관련된 자연환경보호지구, 문화재차원의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다. 크게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4가지 범주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립공원(도립, 군립), 산림유전자원보호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이다. 여기에 백두대간보호법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백두대간보호법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자랑할만한 새로운 자연관리 체계가 있으면서도 아쉬움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세계자연유산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세계자연유산이 3곳이 존재한다. 일본은 비록 섬이지만 우리의 지형적 유사함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규슈 남단 가고시마현의 야쿠시마를 비롯하여 혼슈 최북단인 도호쿠지역의 아키타현-아오모리현의 시라카미산지(白神山), 홋카이도 동쪽끝의 시레토코 등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을 살펴보면, 가고시마의 야쿠시마는 과연 세계자연유산 다음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유명한 만화영화 '원령공주'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야쿠시마의 삼나무를 비롯한 난대원생림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자연생태계를 나타낸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울릉도와 한라산을 합친 것 같은 독특함을 자랑한다. 도호쿠의 시라카미산지는 너도밤나무 원시림으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숲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원시성에 주목하여 지정된 것으로 되었다. 순수한 원시림이 존재하지 않은 남한의 현실에서 약간의 부러움과 아쉬움이 존재한다. 시레토코는 2005년 7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한대식생을 비롯한 독특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가면 이 정도 되는 생태공간이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일본의 세계자연유산 지정 과정을 살펴보면, 세 곳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본 정부의 노력이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다른 외국의 자연과 비교할 때 얼마만큼의

독특함과 고유함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빼어났던 점이 돋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연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백두대간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징적인 일이다. 백두대간 자체가 지정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백두대간 안에는 그것을 검토해 볼만한 곳이 여러 곳 있다. 물론 북한 쪽에서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개마고원, 금강산 등이 떠오른다. 이들 지역은 학술적 과학적으로 잘 조사하여 정립한다면 나름의 가능성은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남한지역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남한 내에 인간의 간섭을 단 한번도 타지 않았던 원시림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일정한 답을 준다. 아쉽게도 남한에는 인간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던 원시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축인 백두대간부터 횡축인 비무장지대까지 다양한 간섭이 존재했다. 한라산도 울릉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노력을 기울여 볼 만한 곳은 여러 곳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으뜸인 곳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가 만나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종축과 횡축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금강산부터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을지전망대-향로봉-건봉산 등이 연결되는 비무장지대 일대다. 물론 비무장지대는 그 자체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복합유산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경우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축과의 교차점이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향후 10년 내에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는 북한의 입장 때문이다. 북은 비무장지대를 민족의 아픔, 분단의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민족의 비극현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민족의 수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비무장지대의 관리권이 미국(유엔사)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이런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이 역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세계자연유산이든 복합유산이든 검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북한의 협조와 공동노력 없는 남한만의 지정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꼽히는 한라산, 울릉도와 독도가 관심을 끈다. 한라산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구상나무 군락이 매우 특징적이며 인상적이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 남단의 3곳만 서식하는 종으로 이것의 대규모 군락은 한 번 꺼내볼 만한 카드로 여겨진다. 아울러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생태계는 식생의 고도별 구성으로 볼 때 아고산대부터 아열대까지 이어진 독특함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아고산대부터 아열대까지 펼쳐진 곳은 아주 드물다. 울릉도와 독도도 좀더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면 세계자연유산의 지정을 검토해 볼만하다. 울릉도는 오직 한국의 울릉도에만 있는 특산식물이 제법 있으며 섬의 지리적 지형적 가치도 독특하다. 아울러 좀더 충분한 조사를 한다면 검토의 가능성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특히 울릉도의 자연자원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독특한지를 규명한다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특히 독도는 해저지질 등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연자원이다.

비무장지대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백두대간의 관리지역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가장 높아 보이는 곳은 단연 지리산 동북권역의 세석-천왕봉-중봉-하봉 지역이다. 이곳은 가문비군락을 정점으로 구상나무-주목의 고산침엽수림을 비롯하여 야광나무-사스레나무-신갈나무-노각나무 등의 활엽수림이 어우러진 동북아에서도 유일하게 가까운 지역이다. 일본의 시라카미산지와 비교한다면 독특함과 생태적 가치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가문비나무는 해발 1600m 이상에만 서식하는 수종으로 남한에서 설악산, 계방산, 덕유산에 서식하지만 개체 수는 지리산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백두산에 대규모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비군락에 대한 좀더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계자연유산을 검토 해볼 만 하다. 특히 일본에는 지리산과 비슷한 위도에서 가문비 군락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쪽의 서식현황만 파악해보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들 숲의 주요계곡도 주목을 끈다. 바로 꼬리치레도룡농이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개체수와 서식 포인트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종은 러시아에서는 국가적인 보호종이며, 러시아아무르부터 연해주를 거쳐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주요 서식지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종이 된다. 세계자연유산은 당연히 종다양성과 함께 희귀한 종의 서식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남한에도 살펴보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검토해 볼 만 곳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특히 환경부의 태도를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세계자연유산이 없는 것은 그만큼 가치의 자연이 없었다기보다 환경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그런 정도의 안목과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고 아울러 이를 우리의 자연에서 어떻게 검토할 지 생각도 없었다. 그런 점에 일본은 같은 가치의 자연이라도 이것이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떤 차별적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알리는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았다.

국가의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 바로 자연자원이다.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자연자원을 밝히고 규명하는 노력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직 안되는 나라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고, 정부는 냉정히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도 유례가 없는 자연자원 관리체계를 만들고 보전을 위한 법이 실현된 것을 계기로 이제 우리도 세계자연유산을 한 곳 짚은 가지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백두대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의견

유기준(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산줄기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한민족의 상징성을 지닌 지역으로 우리 땅의 골간을 이루며 형성된 생활권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확한 실체나 자연, 문화 환경의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기 전에 이미 많은 환경적 압박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정부, 학계,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2003년 12월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와 논의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생태적,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제 백두대간이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효율적으로 보호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발제를 통해 백두대간의 의미,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재를 위한 고려 사항들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몇 가지 등재를 위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세계유산으로서의 백두대간의 공간적 범위 문제

현재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범위가 설정된 상태로 이는 관리적 차원에서의 구획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간적 실체에 대한 규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세계유산으로서의 백두대간은 단순히 자연경관의 우수성만이 아닌 백두대간내의 자연과 문화라는 복합 구성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권역설정이 기존의 관리범위와는 다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지구적 차원의 백두대간 가치 규명 문제

세계유산으로서의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범지구적 차원의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와 보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 자료의 제공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노력

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토축의 상징성을 고려한 남북한 공동 추진의 필요성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과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는 분단되어 백두대간의 남한지역에 대한 부분만이 거론되고 있으나 통일이 되면 비로소 백두대간의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으므로 남북통일의 맥락에서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국토의 축을 잇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4. 백두대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및 지역사회의 낮은 인지도 문제

백두대간은 한반도 중심축으로서 생태적 중요성은 물론 인문사회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인식정도가 아직도 낮고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까닭에 관리정책의 수립과 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역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없는 효율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민(爲民)의 산경표 그리고 백두대간

신영철(사람과 산 편집위원)

지금은 일반적 고유명사로 누구나 알고 있는 ‘백두대간’이라는 생경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떨리던 기억이 있다. 만으로 꼭 15년 전 11월이었다.

“내가 했던 태백산맥은 없었어.”

태백산맥 종주기 ‘하얀 능선에 서면’이라는 스테디셀러를 쓴 남난희가 태백산맥은 없다니. 산악전문지 ‘사람과 산’에 최초로 백두대간 종주를 끝낸 남난희 의 전화 한 통에, 두 번째 검증으로 필자가 뛰어 들었다. 산정에 서면 사망으로 제멋대로 울울창창 치솟은 산들을 보며 그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쉽게 들 수는 없다. 산정에 선 사람들은 누구든 그랬을 것이다. 가뭇하게 음영으로 중첩된 산들을 이어 간다는 게 아무래도 실감나지 않는 때였다.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산들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 또한 그 사실을 이미 17세기의 우리 선조들이 글과 지도로 남겨놓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충격. 대학산악부나 일반산악회에서 훈련의 일환으로 활용되던 그 힘든 태백산맥 종주가 가짜였다는 확인. 그래서 태백산맥 종주가 산줄기가 끊어지고 계곡을 건넜다는 깨달음. 토막 난 종주가 독도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시 산악계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있었다.

대학입시를 위하여 달달 외우던 산맥 분류가 잘못 되었다는 그 울림은 이 땅 산악인들에게는 커다란 천둥소리였다. 그 천둥소리의 실체를 찾아, 백두대간의 실상을 좇아, 산악인들은 산경표를 경전처럼 들고 기꺼이 바쁜 다리품을 팔았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같이 여태 배워 온 지리지의 역사가 채 백년이 안 되고, 그것도 일본제국주의 시대 심각한 정치적 목적과 자원수탈을 위해 없던 것을 발명(?)해낸 개념 일뿐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일본의 고도 분지료같은 지리학자들이 조선의 산을 단 14개월간 답사한 끝에 만들어진 지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당혹감. 백번 양보해도 순수한 학문적 업적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지하자원파악의 소도구에 불과 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경악했던가.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 낸 태백산맥 같은 지리도는 산맥이 물을 만나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당연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산악인들은 산경표의 출현으로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 이젠 15년 전과는 다르게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사회전반에 걸쳐 자연스레 소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현상을 보며 산경표에 몰입했던 사실이 기쁘기도 하거니와 한사람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바로 故이우형 선생이다. 그이는 박제가 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대동여지도를 살려냈고 묻혀있던 ‘산경표’라는 보물을 발굴해냈다. 걸걸한 목소리로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산맥이 뭐가 필요 있어!’하고 질타하던 그 모습이 생각난다. 현대판 고산자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그이는 이 땅 산의 족보 산경표에 기록된 백두대간,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의 존재를 온 몸으로 알렸다.

산맥이란 용어의 정의는 ‘산들이 연이어 달리고 있는 현상’이다. 이우형씨의 지적대로 현행 태백산맥은 물도 건너고 땅속으로도 이어진다. 우리가 인식하는 산맥이 아닌 것이다. 그

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질학적 분류로 되었기 때문이다.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조성된 화강암 암석이 직선으로 물 속을 건너든, 땅속을 달리든, 산으로 솟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산맥이 아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오랫동안 같은 생각을 했다. 선조들은 눈에 보이는 산줄기를 기록했고 그 산들의 이어짐을 지도에 그렸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관심 있게 대동여지도를 본 사람은 그것을 안다. 물론 그 역사적 사료들의 존재를 그 당시 관련 학계와 언론에서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도 미미했고 언론도 관심이 없었다. 하여 당시는 소수의 사람들만 산경표를 인식했지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집대성해 온 인문지리지 산경표의 중요성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산경표와 백두대간을 모르는 이가 없다. 백두대간 진정한 부활은 그렇게 이우형 선생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그것에 주목한 월간 '사람과 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1989년 11월에 월간 사람과 산이 첫 번째 책을 내며 탄생했다. 창간 당시부터 기획된 '백두대간을 간다'라는 특집은 일년 동안의 자료 검토와 준비를 거쳐 1990년 11월 지리산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산경표의 실체를 서지학적 측면이 아니라 발로 확인하는 사실적 발굴 탐사 보도였고 발품을 기록해 가는 대하 연재기였다. 그렇게 시작된 사람과 산의 산경표 답사 연재는 산경표가 인문적 지리지라는 재확인이었고, 보석처럼 빛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눈부신 유물이었다는 것의 명징한 확인이었다. 산경표 상에 나타난 백두대간과 9정맥들을 일년에 한 줄기씩 10여 년 동안 지면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전국에서 성원을 해준 산악인들의 덕분이다. 책상에서 그려진 지도 독도와는 달리 미답의 산줄기를 따라 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이다. 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긴 시간과 장비와 전문지식이 수반되는 이 탐사 보도는 다른 매체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지난한 일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과 산은 창간부터 산악인들에 의해 태어난 잡지이므로 그것이 가능했다. 남한 땅 백두대간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산악인들의 절대적 협조로 산경표 상의 백두대간 남쪽 산줄기가 차례로 연재되고 규명되었다. 그 기록들은 사진으로 지도로 제작되었으며, 미완의 북쪽 답사를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 신청도 해 놓았었다. 연 인원 수백 명씩 동원되었던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보적 작업이 되어 갈 것은 틀림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그것은 온전히 산 사랑하나로 동참해 준 전국의 산악인 몫이다. 직장에서 휴직을 하고 동참 한 사람. 병원 문 닫고 뛰어든 사람등 자발적 참여와 희생이 이 땅에 산경표를 찬란하게 부활시킨 것이다.

백두대간 첫 번째 종주에 나선 남난희. 권경업 팀으로부터 두 번째 낙동정맥 신영철팀. 세 번째 호남정맥 조석필팀과 낙남정맥 송용철팀. 금북정맥의 김웅식팀과 한북정맥의 실체를 증명했던 서재철 팀등 남쪽의 산경표 상에 나타난 산줄기는 모조리 답사되고 기록되었다. 그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또 강요나 지시로도 될 일 역시 아니었다. 이 땅의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들로서 자발적 참여였고 산악인 특유의 산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백두대간이 되 살아 난 것을 보면 그들의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곰곰 생각해 보면 묻혀있던 산경표의 부활은 이 시대에 하나의 사건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땅을 살피는 철학이 담긴 유래가 없는 독창적인 표기로 이 땅 산들의 족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족보는 틀릴 수 없다. 다만 서구식 광맥, 혹은 지질 논리의 눈으로 보면 틀릴 수 있

다. 그러나 그건 족보가 아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산경표 신도들의 정맥 종주 후의 소감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산경표가 소리가 나는 오디오라면 대동여지도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비디오다. 텔레비전은 두 기능이 합쳐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태백산맥이 그러한가?. 아니면 소백산맥이 혹은 마천령산맥이 그럴까. 세계에서든 유래가 없는 독창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의 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발로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든 산경표 신도가 될 수밖에 없다. 연재가 계속될수록 사회엔 백두대간에 대하여 거대 담론이 형성되어 갔고 산경표에 대하여 학술적 관심도 모아졌다. 이우형 선생 생전에 사람과 산은 공동으로 전국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며 백두대간의 개념을 일반에게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 전도의 효과는 예상외로 컸고 산경표의 실상을 이해하는 순간 청중들은 열렬한 신도가 되었다. 그런 열기와 발로 쓴 글들은 속속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었다. 절찬리에 읽혔던 '태백산맥은 없다'라는 단행본과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등 많은 산경표 관련 서적이 그것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시작에 불과했다.

환경 단체들의 백두대간 파괴현장 고발이라는 이슈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백두대간 개념의 교과서 수록 제안 심포지엄도 열렸다. '백두대간보전회'와 '우리산맥바로세우기 포럼'같은 많은 백두대간 관련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렇게 사회에 산경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더니 급기야는 대학 입시 지문에도 산경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리 교과서에도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드디어 산경표 개념이 실리게 되었다. 텔레비전 방송의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위력을 보이는데 1992년 MBC에서는 50분짜리 '산경표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방송 대상을 타기도 했다. 이 방송은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재방송까지 되었다. EBS도 1998년 '백두대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

산경표의 개념은 그 뿐만 아니라 소설로 무수한 시로 표현되어 문학적 장르로도 지평을 넓혔다. 지금까지 발행 된 관련 서적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을 분량이다. 경제계에도 활용되어 유명상표로도 등장하였다. 그런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 끝에 월간 사람과 산은 '백두대간' 전문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입법 기관인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제화에 의견을 모았는데 '백두대간보호법'이 그것이다.

당시 일 년 동안 종주를 한 산악인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는 말했다. '암·빙벽과 히말라야에 몰입했던 때도 좋았었으나 산경표를 만나고 그것의 확인을 위하여 사계절을 살가운 이 땅 산 속에서 보낸 세월이 가장 행복했고 보람 있었던 때였다'고. 산경표에서도 더러 오류를 발견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 정신이 훼손 되는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 그대로 읽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서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다듬어졌듯 산경표도 진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재 답사 연재하는 것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정확한 산경표를 구현해 내는 일이다. 백두대간과 정맥의 정확한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작업의 기사와 지도를 쫓아 앞으로 종주에 나설 수많은 산악인들의 좌표가 될 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그렇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지도의 모태가 된 청구도 서문에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말은 전 국토의 7할이 산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의 백두대간 종주 붐이 식을 줄 모르는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백두대간이든 정맥이든 하나라도 산경표 개념에 맞춰 종주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제 산줄기와 물줄기를 간단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어느 산이라도 그 산줄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게 과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모두 '산은 물줄기를 나눈다'는 산자분수령의 위민의 산경표 덕분이다. 산사랑은 자연사랑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인문지리지의 생활화에 앞서 달려왔고 달려 갈 산경표 애호가들이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줘도 뭐랄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작금의 백두대간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제정되고 백두대간 보전과가 생성되었다고 백두대간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사는 생태축으로, 후세에게 물려줄 한국의 허파로서, 아직 남아 있는 전인미답의 비경과 자연 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 적절한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시작한 이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토의되고 학술적 담론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백두대간의 필요성을 공감 시킨다면 보전과 보호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산경표의 부활을 누구도 막지 못했듯 세계인들에게 백두대간의 존재 가치가 축복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2006 심포지움 자료집 「백두대간,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한가?」

- 펴 낸 날 : 2006년 2월 16일
 - 펴 낸 곳 : 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13-34
 - 녹색연합 등록번호 : 001-06-02-002
 - 홈페이지 : www.greenkorea.org/www.daegan.org
 - 전화번호 : 02-747-8500
-

